

정책연구보고서 2016-39

대전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성과검토와 효율적 지원방안

김 기 희 선임연구위원

연구진

연구책임

- 김기희 / 기획조정실 선임연구위원

요약 및 정책건의

1. 연구개요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대전광역시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규모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 크게 증가해 왔으나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에 비해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성고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는 지적도 많음.
-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은 대기업에 비해 신용도 및 담보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금융 기회 확대를 통하여 시장실패를 보정하고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자금난 및 양극화를 해소하며 경기 완충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그간 대전광역시에서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입된 정책지원금에 대하여 실제로 중소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한 평가를 시도하고, 나아가 기업 입장에서 지원자금을 활용하면서 겪은 애로요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원자금의 활용도를 극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가 지역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이 지원목적에 맞게 활용되어 얼마만큼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실제 지원자금을 용자 받은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하여 객관적인 효과분석을 시도함.
- 이와 같은 중소기업 지원자금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향후 정책자금이 효과

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효율적 자금운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활용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있음.

2. 주요 연구 내용

■ 정책자금 지원 내용 및 실적

□ 주요 시·도 대비 대전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인천이 7,500억원, 경기도가 7,000억원, 대구가 4,000억원 등으로 높고, 대전은 2,500억원 수준으로 울산, 전북, 강원, 충북, 서울 등보다 큼.
- 지원한도
 - 일반기업과 우대기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음. 우대기업의 경우 대구가 10억원, 강원도가 6~8억원, 경기도가 5억원 등이며, 대전은 전입·재해기업 3억원 수출기업에 대하여 울산과 함께 5억원을 지원함. 일반기업은 대구, 경기도, 강원도가 5억원, 제주도 업종별 차별하여 5억원, 서울과 충북은 일반기업과 우대기업 구분하지 않고 5억원, 울산은 4억원 규모이고, 전북은 3억원, 대전은 2억원임.
 - 따라서 지원한도는 대전이 타 시·도보다 낮은 수준임.
- 용자기간
 - 강원도가 기본 2년에 연장 2년, 서울이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 전북은 2년 거치 2년 상환(또는 일시상환), 경기도는 1년 거치 3~4년으로 대전의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보다 긴 것으로 조사됨.
- 이차보전 이자율
 - 강원도가 2.0~4.0% 사이 차등지원, 대전, 전북, 인천, 충북 등은 일반기업 2.0%에서 우대기업 3.0%까지 차등 지원. 대구는 1.0~1.8% 사이 차등 지원
 - 따라서 대구를 제외하고 주요 시·도의 이차보전 이자율은 대체로 2.0~3.0%

의 유사한 수준에서 지원되고 있음.

□ 정책자금 지원실적

○ 경영안정자금

- 2013년부터 500억원 증액한 2,500억원이 모두 소진되지 않고 있고, 업체당 평균 지원금액도 2010년 159백만원에서 2015년 150백만원으로 오히려 감소하였음.
- 따라서 지원 계획자금이 기업들에게 실제 모두 이용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하여 계획자금의 이용 활용도를 높이고, 이용 업체수와 이용금액의 확대를 위한 이용조건의 개선, 적극 홍보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

- 2014년까지 계획금액이 소진되지 않아 이용률이 저조하였으나 2015년은 100억을 감액한 200억원이 모두 소진되었으며, 지원업체수도 2015년 들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체당 지원금액도 소폭 증가하였음.
- 2016년에도 지원계획금액이 모두 소진될 경우 2017년에는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 2012년까지는 전액 소진하지는 못하였으나 2013년은 초과하여 지원한 이후 2014년부터는 모두 소진하고 있음.
- 2015년은 100억원 증액한 200억원이 모두 소진되었고 지원업체수도 대폭 증가한 점을 감안하여, 2016년에도 계획자금이 모두 소진될 경우 자금을 증액할 필요가 있음.

■ 정책자금 지원성과 조사

□ 정책자금 활용 용도

- 지원자금 활용 용도

- 운전자금 43.6%, 시설자금 16.2%, 원자재 등 재료비 15.4%
- 그러나 기술개발(5.3%)과 인력확보(3.8%) 활용 용도는 낮음.
- 인건비 활용 용도
 - 기존인력 인건비 보전 70.7%, 신규 정규인력 채용 18.1% 등
 - 따라서 정책자금의 일자리창출 효과는 크지 않음.

□ 기업경영에 미친 영향

- 정책자금이 경영환경에 미친 영향
 - 정책자금이 경영부담 경감, 생산성 증대, 사업운영 규모 확대, 신용 상승, 신규 사업 및 영역 진출 등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신규 근로자의 추가 고용에는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정책자금이 주요 경영지표에 미친 영향
 - 생산 : 매우 크다 33.3%, 대체로 크다 40.7%, 보통 22.2%
 - 매출 : 매우 크다 27.7%, 대체로 크다 36.9%, 보통 32.3%
 - 고용 : 매우 크다 13.3%, 대체로 크다 25.7%, 보통 41.9%
- 정책자금 용자 받기 전년도와 용자 받은 후년도의 경영지표 변화
 - 생산 : 기업당 2억5천2백만원 증가
 - 매출 : 기업당 1억9천8백만원 증가
 - 고용 : 기업당 0.77명 증가

□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어려움

- 기업 자력으로 필요자금을 충분히 조달하지 못하는 이유
 - 담보부족 32.2%, 대출한도 부족 13.9%, 높은 금리 12.6%, 매출 부족 12.2%, 은행의 보수적 대출심사 12.2%
-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이유
 - 낮은 금리 65.4%, 신용대출 가능 등 좋은 담보조건 10.7%, 은행 대출이 곤란해서(담보 부족 등) 10.1%
- 동산 담보대출 이용 여부
 - 이용한다 11.3%, 이용하지 않는다 88.7%

- 동산 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 금융기관의 취급 기피 28.0%, 이용절차가 복잡하고 조건이 까다로워서 26.0%, 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 15.0% 등
- 정책자금에 대한 불만 사항
 - 신용대출 곤란 및 담보·보증 요구 23.4%, 지원자금 및 대출규모가 적음 15.9%, 지원·거래 절차 및 구비서류 복잡 12.1%, 대출기간이 단기 10.5% 등

3. 정책건의

■ 대전광역시 중점 추진방안

□ 정책자금 이용 확대를 위한 방안 강구

- 홍보 확대
 - 경영안정자금 2,500억원이 모두 소진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경영안정자금이 모두 소진될 수 있도록 지역 모든 중소기업에게 직접방문이나 안내장을 송부하고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용 전개
- 지원기업분야 확대 : 경영안정자금
 - 지역산업육성계획 등을 고려하여 우대기업 유형을 확대하는 방안 고려
 - 대전시 주력산업 중 자체 육성산업인 국방산업분야
 - 무담보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 소상공인 취약계층 : 다문화가족 소상공인, 자활기업 소상공인, 새터민 소상공인 등
- 무형자산 보유 기업에게 지원대상 확대 및 융자제한조건 개선
 - 신기술이나 특허 등 미래가치를 지닌 무형자산 보유 창업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 등에게도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으로 확대 검토
- 영세·소기업 자금지원신청 도우미 지원
 - 영세기업인 경우 지원절차를 일부분 생략하거나 별도의 컨설팅트를 두어

일괄지원이 가능하도록 도움

-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우대범위 합리화
 - 단기 운전자금이 부족한 업체를 경영안정자금 지원조건으로 추가 설정
 - 유동성 악화업체에 지원되도록 기준을 재정비

□ 운전자금의 확대와 신용보증지원 확대

- 현재 경영난을 겪고 있는 주요 이유
 - 자금난 43.2%, 판매난 35.6%, 인력난 11.4% 등
- 시급한 자금지원정책 : 운전자금과 신용보증지원 확대
 - 운전자금 지원 확대 45.4%, 신용보증지원 확대 32.5% 등

□ 정책자금의 지원한도 등 확대 검토

- 경영안정자금의 지원한도 규모 확대
 - 현행 2~5억원인 기업당 우대금리와 일반금리 지원한도 규모를 확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 규모 확대 검토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의 실제 지원실적은 2014년까지 계획금액 대비 지원금액이 매우 저조하였으나 2015년에는 전액 소진되었음.
 - 따라서 2012년 대비 2016년 현재 300억원이 감액되었는데, 2015년 계획금액 200억원이 모두 소진된 점을 감안하여 2016년도에도 모두 소진될 경우, 다시 계획금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음.
-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의 지원 규모 및 한도 조정
 - 첫째, 현행 기업당 5억원인 지원한도를 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그러나 이 방안은 1기업당 5억원도 상당 수준이므로 기업에 따라서는 상환에 부담이 될 수도 있음.
 - 둘째, 2016년 현재 총지원규모가 300억원인데 매년 지원실적금액이 모두 소진되고 있는 만큼 총지원규모를 100억원 이상 증액하여 현행 지원조건으로 지원업체를 확대하는 방안.
 - 셋째 1기업당 지원한도를 3억 또는 4억으로 축소하고 대신 자금의 운

용이나 상환내역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업에게 2차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넷째, 융자기간을 현행 2년 거치 일시상환에서 거치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거나 일시상환도 2년 이상 상환으로 연장하는 방안

□ 융자기간 연장 또는 이차보전을 상향 검토

○ 경영안정자금 융자기간 연장 검토

- 현행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을 만기기간을 3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또는 일시상환을 2년 이상 등으로 융자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 이차보전을 상향 검토

- 이차보전 이자율을 우대기업이나 일반기업에 대하여 각각 현행 각각 2.5%, 1.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그러나 2014년까지 총지원금액 300억원이 모두 소진되지 않았으나, 2015년부터 200억원으로 감액한 이후 모두 소진된 점을 감안할 때, 이차보전을 상향을 검토할 경우에는 총지원금액 현행 200억원을 300억원 등으로 증액하여 더 많은 기업이 이용하려는 과당경쟁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

□ 재무와 신용상태에 중요도를 고려한 배분 기준

○ 지원업체 선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우선 배분기준 : 재무상태와 신용상태

- 재무상태(생산성, 안정성, 성장성 등) 45.8%
- 신용상태(연체, 부도, 권리침해 여부 등) 22.2%
- 기타 기술성, 사업전망 각각 14.6% 등

○ 정책자금의 고용창출력 강화

- 정책자금을 융자받은 업체의 신규고용요건을 강화하거나 인건비 중 일정규모 이상을 반드시 신규인력을 채용하는데 사용토록 사전 조건 강화
- 매년 사업 평가를 통하여 다음 연도 사업지원자금 차등 적용

□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업 방향

- 향후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자금지원 분야
 - 운전자금 등 경영안정 44.0%, 창업지원 18.1%, 기술개발 8.9%, 신규설비투자 6.9%, 구조조정 6.6%, 생산성 향상 5.4% 순
- 가장 중요한 정책자금 개선안
 - 긴급한 경영상황에 직면한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회생자금 확대 23.3%
 - 기업 부담금리 조정으로 금융비용 완화 23.3%
 - 사회취약계층 특례보증 지원 19.1%
 - 무담보 기술업종에 대한 금융지원 15.3%, 지식서비스산업, 성장산업 등으로 지원업종 대폭 확대 13.6% 등

□ 사후관리체계 강화 : 성과평가 및 환류시스템 구축

- 정책자금 지원 후 지원목적에 부합하게 효과적으로 활용되었는지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사후적 성과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 지원성과 분석 및 환류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한 기업이 2차, 3차, 그리고 성장단계별로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지원성과를 엄밀히 평가·분석하여 지원금액을 인센티브 성격의 차등을 두어 지원함으로써 지원업체의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캐나다는 육성자금 대출 당시에는 높은 금리를 성장하되, 일자리창출, 조기상환 등 일정한 수준 이상의 목표를 달성한 기업에게 금리 인센티브(환급)를 제공하거나 혹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중앙정부 중심 추진방안

□ 기술가치 평가 및 기술금융 확대

- 중소기업의 기술가치평가 활성화 : 중소기업 기술가치 평가기관 설립
 - 대전지역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기술평가가 활성화되고 기술평가의 신뢰도가 높아지면, 기술평가에 따라 금융기관의 창업과 사업화자금을

을 공급구조 정착을 기대할 수 있음

- 따라서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가치 평가기관의 설립을 검토할 수 있음.

○ 기술금융 확대 : 효율적 기술평가시스템 구축

- 기술금융은 신뢰할 수 있는 평가에 기초하기 때문에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효율적 평가시스템 구축이 중요함

- 효율적 기술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적 성격의 기술정보DB 구축, 은행 등 금융권의 기술평가 역량 제고, 민간기술신용평가기관을 적극 육성

□ 신용보증 및 신용보험 활성화

○ 중소기업의 담보부족으로 정책자금 도움 없이 자력으로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하지 못하는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자산을 담보로 신용보증을 확대하여 일시적 자금난 업체의 자금조달 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어음,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 유형, 무형의 자산을 담보로 신용보증을 가입하고 이를 담보로 단기운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용보증을 활성화

□ 중소기업청 소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 개선

○ 지역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자금수요가 발행했을 경우 한도금액은 낮지만 금리에서 다소 유리한 지방자체단체의 경영안정자금을 선호하게 됨.

○ 그러나 중복지원으로 분류되어 신청이 제한되고 있는 바, 추가적인 자금수요 시 중소기업이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동평가지표 내 중복지원의 감점적용 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목 차 -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4
제2절 연구 방법과 구성	5
1. 연구의 방법	5
2. 연구의 구성	6
제2장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현황	9
제1절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내용	9
1. 2016년 정책자금 지원계획	9
2. 경영안정자금	13
3.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	20
4.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22
제2절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실적	25
1. 지원실적 총괄	25
2. 유형별 지원실적	29
3. 업종별 지원실적(경영안정자금)	35
제3장 정책자금 지원성과 검토	41
제1절 중소기업의 구성과 변화	41
1.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변화 추이	41
2. 주요 경영지표 변화 추이	46
제2절 정책자금 지원성과 조사	50
1. 정책자금과 인건비 활용 용도	50
2. 기업 경영에 미친 영향	51
3.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정책자금에 대한 불만사항	55

제4장 정책자금 운용 개선방안	61
제1절 대전광역시 중심 추진방안	61
1. 정책자금 이용 확대를 위한 방안 강구	61
2. 운전자금의 확대와 신용보증지원 확대	63
3. 정책자금의 지원한도 등 확대 검토	65
4. 용자기간 연장 또는 이차보전을 상향 검토	68
5. 채무와 신용상태에 중요도를 고려한 배분 기준	70
6.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지원방향	72
7. 사후관리체계 강화 : 성과평가 및 환류시스템 구축	74
제2절 중앙정부 중심 추진방안	75
1. 기술가치 평가 및 기술금융 확대	75
2. 신용보증 및 신용보험 활성화	76
3. 중소기업청 소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 개선	76
제5장 요약 및 정책건의	81
제1절 연구결과 요약	81
제2절 정책건의	83
참고문헌	87
부록 : 설문지	88

- 표 목 차 -

〈표 2-1〉 대전광역시 연도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9
〈표 2-2〉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현황(2016)	10
〈표 2-3〉 은행협력자금 지원규모 및 이차보전 지출현황	11
〈표 2-4〉 최근 5년간 시중은행협력자금 평균금리 현황	12
〈표 2-5〉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수출기업 지원현황 및 지원계획	12
〈표 2-6〉 대전광역시 경영안정자금 지원내용	15
〈표 2-7〉 주요 시·도 경영안정자금 지원내용 비교	18
〈표 2-8〉 대전광역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 지원내용	20
〈표 2-9〉 대전광역시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지원내용	23
〈표 2-10〉 대전광역시 경영안정자금 지원실적	26
〈표 2-11〉 대전광역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 지원실적	27
〈표 2-12〉 대전광역시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지원실적	28
〈표 2-13〉 대전광역시 경영안정자금 유형별 지원실적	30
〈표 2-14〉 대전광역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 유형별 지원실적	32
〈표 2-15〉 대전광역시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유형별 지원실적	34
〈표 2-16〉 대전광역시 경영안정자금 업종별 지원실적	36
〈표 3-1〉 대전 전산업 규모별 사업체수 추이	41
〈표 3-2〉 대전 전산업 규모별 종사자수 추이	43
〈표 3-3〉 대전 전산업 중소기업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와 비중 추이	44
〈표 3-4〉 대전 10인이상 제조업 사업체수 비중과 추이	45
〈표 3-5〉 대전 10인이상 제조업 종사자수와 비중 추이	46
〈표 3-6〉 대전 10인이상 제조업 1인당 실질임금 추이	47
〈표 3-7〉 지원자금 활용 용도	50
〈표 3-8〉 인건비 활용 용도	51
〈표 3-9〉 정책자금이 경영환경에 미친 영향	52
〈표 3-10〉 정책자금이 주요 경영지표에 미친 영향	53
〈표 3-11〉 정책자금이 가장 도움된 부분	54

<표 3-12> 정책자금 융자 전과 후의 경영지표 변화	54
<표 3-13> 기업 자력으로 필요 자금을 충분히 조달하지 못하는 이유	55
<표 3-14>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이유	56
<표 3-15> 동산 담보대출 이용 여부와 이용하지 않는 이유	57
<표 3-16> 정책자금에 대한 불만사항	58
<표 4-1> 현재 경영난을 겪고 있는 주요 이유	64
<표 4-2> 시급한 자금지원정책	65
<표 4-3> 경영안정자금의 희망 지원횟수 및 이차보전을	66
<표 4-4>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희망 지원횟수	68
<표 4-5>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 희망 이차보전을	70
<표 4-6> 지원업체 선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우선 배분기준	71
<표 4-7> 향후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자금지원의 목적	72
<표 4-8> 가장 중요한 정책자금 개선안	73

- 그림 목 차 -

<그림 3-1> 전산업 사업체수 증감	42
<그림 3-2> 전산업 사업체수 증감률	42
<그림 3-3> 전산업 종사자수 증감	43
<그림 3-4> 전산업 종사자수 증감률	43
<그림 3-5> 중소기업 사업체 비중 증감	44
<그림 3-6>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 증감	44
<그림 3-7> 10인 이상 중소기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전년대비 증감	46
<그림 3-8> 1인당 실질임금수준	47
<그림 3-9> 1인당 실질임금 상승률	47
<그림 3-10> 1사업체당 출하액	48
<그림 3-11> 1사업체당 출하액 증가율	48
<그림 3-12> 노동생산성	49
<그림 3-13> 노동생산성 증가율	49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 방법과 구성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배경

- 대전광역시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규모는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최근까지 크게 증가해 왔으나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에 비해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성과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는 지적도 많음.
- 일부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이 중소기업의 경영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부작용마저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음.
- 그러나 지역이란 열악한 기업입지에서 중소기업은 태생적으로 지니고 있는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한 자금압박, 인력난 및 임금상승,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불안, 판매부진 등 많은 경영환경 요인의 악순환 속에서도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과 지역민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 중소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음. 더구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은 대기업에 비해 신용도 및 담보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금융 기회 확대를 통하여 시장실패를 보정하고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자금난 및 양극화를 해소하며 경기

완충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그간 대전광역시에서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입된 정책지원금에 대하여 실제로 중소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한 평가를 시도하고, 나아가 기업 입장에서 지원자금을 활용하면서 겪은 애로요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원자금의 활용도를 극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2. 연구목적

- 대전광역시가 지역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이 지원목적에 맞게 활용되어 얼마만큼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실제 지원자금을 용자 받은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하여 객관적인 효과분석을 시도함.
- 이와 같이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 지원자금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향후 정책자금이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효율적 자금운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활용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있음.

제2절 연구 방법과 구성

1. 연구의 방법

-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가 지역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이 지원목적에 맞게 활용되어 얼마만큼 정책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자금지원의 성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실제 지원자금을 용자 받은 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설문조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전광역시로부터 정책자금을 용자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145개 업체에 대하여 일반현황 및 용자실적, 인력현황, 신규 채용 인력 등 일반 현황, 정책자금을 용자받은 결과 주요 경영현황에 미친 변화, 생산, 매출, 고용 등 주요 경영지표에 미친 효과 등 정책자금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정책자금 지원시책에 대한 평가 관련 항목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 또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 등에 대하여는 문헌조사자료를 활용하고, 대전광역시의 중소기업 지원현황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실무부서의 자료를 활용하여 대전광역시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내용 및 지원실적을 파악하고 있음.

< 설문조사 개요 >

- 조사기간 : 2016년 9월 ~ 10월
- 조사대상 : 대전광역시로부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자금을 용자받은 2,000여 개 업체 중 설문에 응답한 145개 업체
- 조사방법 : 정책자금 지원기관인 대전경제통상진흥원과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 정책자금지원 실무담당자가 구조화된 설문지를 가지고 해당 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1:1 면접조사하거나 메일 및 팩스 등을 활용하여 조사함.

2. 연구의 구성

-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우선 제2장에서는 대전광역시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내용과 지원실적을 조사·소개하였음. 먼저 중소기업정책자금의 지원내용으로 2016년 정책자금 지원계획,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을 대한 지원내용을 소개하고, 다음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실적 총괄, 유형별·업종별 지원실적을 조사하였음.
- 제3장에서는 정책자금 지원성과를 검토하였음. 먼저 대전 중소기업의 구성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5년에서 10년 후인 2014년까지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기업규모별로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의 구성과 변화, 그리고 실질임금, 출하액, 노동생산성의 변화를 분석하고, 다음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정책자금이 기업경영에 미친 영향과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정책자금에 대한 불만사항 등을 논의하였음.
- 제4장에서는 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먼저 대전광역시가 중심이 되어 개선해야 할 추진방안과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개선해야 할 추진방안을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이는 대전광역시가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정책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는 지방정부가 추진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임.

제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앞장에서 도출한 정책건의 사항을 요약하였음.

제 2 장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현황

제1절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내용

제2절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실적

제 2 장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현황

제1절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내용

1. 2016년 정책자금 지원계획

1) 중소기업 육성자금 추진방향과 지원규모

- 추진방향
 - 안정적인 자금지원 기조 유지 및 정책자금 적기·적량 지원
 - 이차보전을 유지 및 기금 직접 용자 활성화를 통한 지원효과 제고
 - 수요변화 및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한 탄력적 계획 변경

- 지원규모 : 3천억원
 - 자금 유성동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꾸준한 자금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3천억원 규모 지원

<표 2-1> 대전광역시 연도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 계	2,900	2,900	2,900	2,900	3,000
기금 직접용자	100	100	100	200	300
시중은행협력자금	2,800	2,800	2,800	2,700	2,700

자료 :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

- 중소기업육성기금(10%) : 300억원(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 시중은행협력자금(90%) : 2,700억원(경영안정자금 2,500억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200억원)

○ 세부 사업내용

- 중소기업육성자금은 2016년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시중은행협력자금으로 크게 다음 유형에 대하여 총 3,000억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음
- 경영안정자금 : 2,500억원¹⁾
-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 200억원²⁾
- 구매조건부 생산지원자금 : 300억원³⁾

<표 2-2>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현황(2016)

(단위 : 억원)

구 분	2015년 계획	2016년 계획	2015년 당초대비 증감	증액 사유
합 계	2,900	3,000	100	수출기업 지원강화 (100억원 증액)
중소기업육성기금	200	300	100	
구매조건생산지원자금	200	300	100	
시중은행협력자금	2,700	2,700		
경영안정자금	2,500	2,500		
창업및경쟁력강화사업자금	200	200		

자료 :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

- 1)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적기자금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 2) 성장 가능성이 있는 유망 벤처기업의 창업사업화 자금으로 기술개발과 시설투자에 투입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
- 3) 초기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납품 및 계약서만으로도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매출증대 생산효과 도모

2) 이차보전을 유지 및 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 지원

- 2016년 예산확보액 : 70억원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후 부족한 기금재원을 대체한 은행협력자금 지원 확대
로 소멸성 이차보전금 지출이 증가했으나
 - 금융권의 전반적인 저금리 기조로 고객 금융비용 부담 감소, 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을 축소(4.5~3.5% → 3.0~2.0%)에 따라 이차보전금 지출액은 지속적으로 감소

<표 2-3> 은행협력자금 지원규모 및 이차보전 지출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년
은행협력 자금지원	계획	3,720	2,500	2,500	2,500	2,800	2,600	2,700	2,700
	대출실행	3,117	1,853	1,921	1,320	1,801	1,401	1,813	-
이차보전금 지출액		105	143	123	77	75	69	69	-

자료 :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

- 이차보전을 현행 유지
 - 2015년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0.25% 인상함에 따라 국내 금리 인상이 예상되어 이차보전을 현행 유지
 - 2011년부터 5년간 시중은행협력자금 평균금리 현황을 보면, 대출금리와 보전 이율간의 차로 볼 수 있는 고객부담금리는 2013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2015년 현재는 1.64% 수준으로 낮아짐
- 경영안정자금 횡수제한 기준년도 완화(2008년→2010년)

〈 2015년 〉		〈 2016년 〉	
대상자금	이차보전율	대상자금	이차보전율
경영안정자금	2.0~3.0%	경영안정자금	2.0~3.0%
창업및경쟁력강화 사업자금	1.0~2.0%	창업및경쟁력강화 사업자금	1.0~2.0%

〈표 2-4〉 최근 5년간 시중은행협력자금 평균금리 현황

(단위 :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대출금리(A)	6.18	5.69	4.81	5.15	3.84
보전이율(B)	2.20	2.20	2.23	2.24	2.20
고객부담 금리(A-B)	3.99	3.49	2.59	2.91	1.64

자료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3) 기금 직접융자 활성화 및 구매조건생산지원자금 규모 확대

- 통합기금예치 여유기금 활용 구매조건생산지원자금 규모를 확대하여 수출기업 자금지원 강화
 - 미국 금리인상, 중국 경제성장 둔화, 엔저 등 수출환경 악화에 따른 지역기업 수출둔화에 대응

〈표 2-5〉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수출기업 지원현황 및 지원계획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건 수	3건	3건	9건	40건
금 액	11억원	9억원	22억원	100억원

- 시중 저금리 기조를 반영한 현행 금리 계속 유지
 - ※ 분기별 공공자금 관리기금 대출금리(기재부) - 시 차감금리(1.33%)

4) 지원자금의 효율적 배분 및 운영

- 가장 수요가 많은 구매조건생산지원 자금은 상·하반기 구분 운용
 - 연중 균등 자금지원을 위한 수요조절 (경기상황에 따라 필요시 증액 검토)
 - 수출기업에 대한 구매조건생산지원자금 연중지원(100억원 별도운영)
- 농협은행협력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운용
 - 금 리 : 농협은행 협약금리 (3.6%) - 전년 동일(인상요인 상존)
 - 규 모 : 200억원 - 전년 동일
- 경기변동 및 자금수요 변화에 따른 상반기 지원실적 분석후 분야별 지원 규모 조정 등 탄력적 자금계획 변경을 통한 효율적 자금관리 도모

2. 경영안정자금

1) 추진목적

- 지역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적기자금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방침 : 매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3회 한도 지원
- 업무위탁 협약 : 대전경제통상진흥원(신청접수, 자격심사, 자료관리 등)

2) 지원개요(2016년 현재 기준)

- 지원규모 : 2,500억원
 - 2012년까지는 2,000억원, 2013년부터 2,500억원으로 500억원 증액
- 지원대상 : 대전시 소재 업력 6개월 이상 중소기업
- 지원한도 : 일반기업 2억원, 전입기업·재해기업 3억원, 수출우수기업 5억원
 - 2011년 이후 변동 없음
- 용자 기간과 금리
 - 용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2011년 이후 변동 없음)
 - 용자금리 : 기업·은행 자율금리 적용
- 용자실행과 대출은행
 - 용자실행 : 자금 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2011년 이후 변동 없음)
 - 대출은행 : 시와 협약한 시중은행
- 접수방법 :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 방문

3) 이차보전과 이차지원횟수(2016년 현재 기준)

- 이차보전
 - 우대기업 3%(우대금리), 벤처기업 등 14개 기업유형
 - 2013년까지는 우대기업 3.0%~4.0%, 의료제조업 4.0%, 벤처기업 등 3.0%
 - 2012년까지는 10개 기업유형
 - 일반기업 2%(일반금리, 2011년 이후 변동 없음)

- 이차보전 우대기업(우대금리 대상기업) : 14개 기업군
 - ① 벤처등록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수출기업, ④ 시 지정 유망 중소기업, ⑤ 매출의 탑 수상기업, ⑥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원 창업기업(신청일 기준 5년 이내), ⑦ 타 시·도 전입기업(신청일 기준 3년 이내), ⑧ 여성기업, ⑨ 녹색인증기업, ⑩ 고용우수기업, ⑪ 장애인기업, ⑫ 대학 및 청년창업기업, ⑬ 40년 이상 경영 향토기업, ⑭ 뿌리산업기업
 - 2012년까지는 10개 기업유형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30년 이상 경영 향토기업은 우대금리 대상기업이 아니었음

<표 2-6> 대전광역시 경영안정자금 지원내용

구분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지원규모	2,500억원	←	←	←	2,000억원	←
지원한도	•일반기업 : 2억원 / 매출액 •전입·재해기업 : 3억원 범위 •수출기업 : 5억원 / 수출실적	←	←	←	←	←
융자기간	•2년 거치 일시상환	←	←	←	←	←
융자금리	•기업·은행 자율금리 적용	←	←	←	←	←
이차보전	•우대기업 : 3.0% - 벤처기업 등 (14개 기업유형) •일반기업 : 2.0%	←	←	•우대기업 : 3.0~4.0% - 의료제조업 : 4.0% - 벤처기업등 : 3.0% (14개 기업유형) •일반기업 : 2.0%	← (10개 기업유형)	←
이차지원 횟수	•3회로 제한 (2007년부터 적용하되 2009년은 미포함)	←	←	←	←	←
융자실행	•자금 추천일부터 3개월 이내	←	←	←	←	←
대출은행	•시와 협약한 시중은행	←	←	←	←	←
접수방법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	←	←	←	←	←

자료 :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

- 이차지원 횟수
 - 3회로 제한
 - 우대금리 3회 통산 2억 미만
 - 2007년부터 적용하되 2009년은 미포함

4) 주요 시·도 경영안정자금 지원내용 비교

- 지원규모
 - 경영안정자금의 지원규모는 인천이 7,500억원, 경기도가 7,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대구가 4,000억원, 대전이 2,500억원 순으로 많음
 - 울산이 1,550억원, 전북이 1,130억원, 강원도가 1,000억원, 충북이 880억원, 서울이 550억원 순으로 이들 시·도는 대전보다 적음.
- 지원한도
 - 우대기업의 경우 대구가 10억으로 가장 많고, 강원도가 6억원~8억원, 경기도가 5억원으로 가장 많음, 대전은 전입·재해기업 3억원을 지급하고 있고 수출기업에 대하여 울산과 함께 5억원 규모이므로 위 도시들 보다 지원규모는 적은 편임
 - 일반기업의 경우 대구, 경기도, 강원도가 5억원 규모이고, 제주도는 업종별 차등 적용하여 5억원, 울산은 4억원 규모임. 대전의 2억원 규모보다 많은 편임
 - 우대기업과 일반기업 구분하지 않고 서울과 충북은 5억원, 전북은 3억원 규모로 대전보다는 많은 편임
 - 특히 경기도는 별도로 소상공인 5천만원, 사회적경제 2억원을 지원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대전은 타 시·도보다 업체당 지원규모가 낮은 수준임.

○ 용자기간

- 강원도가 기본 2년에 연장 2년 최대 4년, 서울이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 전북이 2년 거치 2년 상환(또는 일시상환)으로 가장 길고, 경기도는 1년 거치 3~4년으로 대전의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보다 긴 것으로 조사됨.
- 충북은 2년 이내 일시상환으로 대전과 유사한 조건임.

○ 용자금리

- 경기도는 기금용자의 경우 고정금리 3.18%와 변동금리 3.0% 적용, 협조용자는 시중금리에 이차보전을 적용
- 강원도는 일반기업 포함 일부 우대기업 3%, 일부 우대기업 3.5~4% 적용
- 전북은 보증서·부동산 담보별 3.9~4.2% 이하, 신용은 은행자율금리
- 대전과 인천은 시중은행 금리 적용

○ 이차보전 이자율

- 강원도가 2.0%에서 최대 4.0% 사이 차등 지원으로 가장 높은 보전율을 지원하고 있음
- 대전, 전북, 인천, 충북은 대략 일반기업 2.0%에서 우대기업 3.0%까지 차등 지원을 하고 있음
- 대구는 1.0~1.8% 사이 차등 지원함으로써 가장 낮은 보전율을 지원하고 있음
- 따라서 대체로 대구를 제외하면 주요 시·도의 이차보전율은 2.0~3.0%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어 시·도간 격차가 없는 편임

<표 2-7> 주요 시·도 경영안정자금 지원내용 비교(계속)

구분	대전(2016)	서울(2016)	인천(2016)
지원규모	●2,500억원	●550억원	●7,500억원
지원한도	●일반기업 : 2억원/매출액 ●전입·재해기업 : 3억원범위 ●수출기업 : 5억원/수출실적	●5억 이내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	●2~3년
융자금리	● 기업·은행 자율금리 적용	●연 2.5%(변동금리)	●시중은행금리
이차보전	●우대기업 : 3.0% - 벤처기업 등 (14개 기업유형) ●일반기업 : 2.0%		●2016년 : 0.3%~2.0%사이 차등지원 ●2015년 - 여성기업 : 3% - 장애인기업 : 3.5% - 우수기업 : 2% - 일반기업 : 1~2%
이차지원 횟수	●3회로 제한(2007년부터 적용하되 2009년은 미포함)		
융자실행	●자금 추천일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은행	●시와 협약한 시중은행		

구분	전북(2016)	대구(2016)	충북(2016)
지원규모	●1,130억원	●4,000억원	●880억원
지원한도	●업체당 3억원	●일반창업 : 5억원 ●유망창업 : 10억원 ●기술형창업 : 10억원 ●일반우대,긴급 : 5억원	●기업당 5억원
융자기간	●2년 거치 2년 상환 또는 2년 거치 일시상환		●2년 이내 일시 상환
융자금리	●담보별 - 보증서 : 3.9% 이하 - 부동산 : 4.2% 이하 - 신용 : 은행자율금리		
이차보전	●일반:2.0% (우대 : 유망중소기업, 일자리창출기업, 3%)	●1.0~1.8% (대출규모, 우대여부에 따라 차등지원)	●일반 : 2% ●우대 : 2.5~3.0%

<표 2-7> 주요 시·도 경영안정자금 지원내용 비교

구분	강원도(2016)	제주도(2016)
지원규모	●1,000억원	
지원한도	●일반기업 : 5억원 이하 ●도내이전기업(3년 이내)·벤처기업,북평공단및폐광지역입주업체, Inno-biz및Main-biz선정기업,일자리 우수 인정기업 : 6억원이하 ●사회적기업,마을기업,가족친화기업 : 7억원 이하 ●향토기업(20년이상),여성기업,장애인기업 : 7억원 이하 ●백년·유망중소기업 : 8억원 이하	●2천만원~5억원 이내 (업종별 차등, 매출액 이내)
융자기간	●최대 4년(4년, 일시상환) ※ 기본2년, 연장2년	● 회차별 각 2년 이내
융자금리	●일반기업 : 3% ●도내이전기업(3년이내)·벤처기업,북평공단및폐광지역입주업체,Inno-biz및Main-biz선정기업,일자리우수인정기업:3% ●사회적기업,마을기업,가족친화기업:3% ●향토기업(20년이상),여성기업,장애인기업:3.5% ●백년·유망중소기업:4%	
이차보전	2.0~4.0%	●일반 : 2.1% ●우대 : 2.8%

구분	경기도(2016)	울산(2016)
지원규모	●7,000억원	●1,550억원
지원한도	●소상공인 : 5천만원 ●사회적경제기업 : 2억원 ●일반기업,신기술기업,벤처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 5억원	●업체당 최대 4억원 이내 - 직수출연백만불 이상 기업 : 5억원 - 조선사내 협력사 : 3억원이내
융자기간	●일반기업,신기술기업,벤처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 3년(1년 거치) ●소상공인,사회적경제기업 : 4년(1년 거치)	
융자금리	●기금융자 : 고정금리(3.18%)와 변동금리(3.0%)적용 ●협조융자 : 시중금리에 이차보전을 적용 - 금리상한 적용 - 융자 사업별,기간별 차등적 이차보전을 적용	
이차보전		●대출금리의 최대 3% 이내 이차보전금 지급 - 신규 : 2.5%, 2~3회 : 2%, 4회 이상 1.5% + 우대 0.5% (벤처,여성,장애인 기업 등)

3.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

1) 추진목적

- 성장 가능성 있는 유망 벤처기업에게 창업사업화자금을 지원하여,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에 투입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활화를 도모함

2) 사업개요

- 지원규모 : 200억원(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금 2억

<표 2-8> 대전광역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 지원내용

구분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지원규모	200억원	←	300억원	←	500억원	←
지원한도	•시설자금 : 10억원 •운전자금 : 3억원 ※ 아파트형 건설사업자 50억원	←	←	←	←	←
융자기간	•시설자금 : 3년 거치 5년 상환 •운전자금 : 1년 거치 2년 상환	←	←	←	←	←
융자금리	•시·농협 협약 금리	←	←	←	←	←
이차보전	•우대기업 : 2.0% (12개 기업유형) •일반기업 : 1.0%	←	•우대기업 : 1.0% (12개 기업유형)	←	← (8개 기업유형)	←
이차지원 횟수	•1회로 제한 (2002년부터 적용)	←	←	←	←	←
융자실행	•자금 추천일부터 6개월 이내	←	←	←	←	←
대출은행	•시와 협약한 농협과 재 협약한 은행	←	←	←	←	←
접수방법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	←	←	←	←	←

자료 :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

- 지원대상 : 관내 소재 중소기업
- 지원분야 :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운수업, 영상산업 등
- 지원내용 : 융자액 13억(시설10, 운전자금3) 이내,
이차보전금 1%~2%, 지원(우대 1회)
- 융자기간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운전자금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협약체결 : • (농협) 저리융자 지원협약 → 신규대출자 3.60%

3) 지원실적

- 융자신청 (단위 : 억원)

년 도	계	2016.6	2015	2014	2013	2012	2011
업체수	91	17	28	6	9	6	25
금 액	625	134	200	42	72	45	132
년 도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1994
업체수	41	82	170	91	26	78	903
금 액	151	407	634	498	184	546	3,590

※ 2006년 10월부터 하나은행 자금으로 지원, 2008년 4월부터 농협자금 지원

- 이차보전금 지원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16.3	2015	2014	2013	2012	2011
계	2,958	127	318	259	431	730	1,093
기 금	430				21	112	297
은행자금	2,528	127	318	259	410	618	796
구 분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3~2004
계	1,422	1,736	1,850	1,914	1,836	1,496	1,940
기 금	521	864	1,200	1,623	1,829	1,496	1,940
은행자금	901	872	650	291	7	-	-

자료 :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

- 제도보완 시행
 - 사유 : 대전시보다 융자이자가 낮은(1.5%) 중진공 정책자금 활용으로 융자실적 저조
 - 보완 : 이차보전 지원을 상향 / 일반 0→1%, 우대 1→2%
- 향후 보완 계획
 - 산업용지 공급 및 지식산업센터 공급 등에 따라 탄력적 자금지원 모색
 - 중소기업진흥공단 시설자금 등 연계지원

4.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1) 추진목적

- 초기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납품 및 계약서만으로도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매출증대 생산효과 도모

2) 사업개요

- 지원규모 : 30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 지원대상 : 관내 소재 중소기업
- 지원분야 : 제조업, 지식산업, 영상산업, 특히 사업화하려는 기업 등
- 지원내용 : 기업당 융자액 5억원 이내(기업금리 1.06%~2.0%)
- 지원조건
 - 분기별 변동금리 ※ 분기별 공공자금 관리기금 대출금리 - 시 차감금리
 - 5억원 이내(소요자금의 75%)
-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정부 공자금리 적용

○ 용자범위

- 중소기업의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또는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 중소기업의 해외구매자와의 수출 또는 납품 계약에 따른 원부자재 및 제품생산 자금

<표 2-9> 대전광역시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지원내용

구분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지원규모	30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국내 200, 수출 100)	200억원	100억원	200억원	←	←
지원한도	•업체당 5억원 이내 (소요자금의 75%)	←	←	←	•업체당 3억원 이내 (소요자금의 75%)	←
용자기간	•2년 거치 일시상환	←	←	←	•1년 거치 2년 상환	←
용자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 분기별 변동금리	←	←	←	←	←
이차보전	•없음	←	←	←	←	←
용자실행	•자금 추천일부더 3개월 이내	←	←	←	←	←
대출은행	•시와 협약한 농협과 재 협약한 은행	←	←	←	←	←
접수방법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	←	←	←	←	←

자료 :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

3) 추진실적

- 2010년 10월 : 자금마련 조례 개정 및 은행(농협) 협약 ※ 전국 최초
- 2014년 11월 : 기업 애로 해소 설문조사 실시
- 제도보완 시행
 - 지원대상 : 대기업, 공기관과의 납품계약 체결 기업
→ 중소기업까지 확대 지원
 - 지원규모 : 지원한도 3억 → 5억까지 확대
※ 공장등록 6개월 지원요건 폐지
- 201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운용 증액(100억원)으로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총 300억원) 내 수출전용자금 100억원 운용
- 2016년 6월 현재 실적 : 39개 기업 120억원
 - 2015년 실적 : 84개 기업 200억원

제2절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실적

1. 지원실적 총괄

1) 경영안정자금

(1) 지원금액

-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금액은 2012년까지 2,000억원 규모로 운용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500억 증액한 2,500억원 규모로 2016년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음
 - 실제 지원실적은 2012년까지는 계획자금을 거의 소진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500억원 증액이 실제 지원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
 - 증액한 500억원이 기업들에게 실제 이용되지 않은 원인을 분석하여 계획자금의 이용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2) 지원 업체수 및 업체당 평균 지원금액

- 지원업체수는 2010년 1,257개 업체에서 2015년 1,322개 업체로 증가하였으나 등락을 반복하고 있음. 특히 2013년 지원금액을 500억원 증액하였으나 지원업체수는 당해연도 소폭 증가에 그치고 이후 감소하였음
- 업체당 평균 지원금액은 2015년 현재 1억5천만원으로 2010년 1억5천9백만원에서 오히려 감소하였음
- 따라서 향후 경영안정자금의 이용 업체수와 이용금액의 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표 2-10> 대전광역시 경영안정자금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지원 계획		250,000	250,000	250,000	200,000	200,000	200,000
지원 실적	업 체 수	1,322	1,164	1,479	1,350	1,365	1,257
	지원금액	198,649	164,949	219,403	194,000	199,997	199,987
	업체평균	150	142	147	144	146	159

주 : 2012년은 12월 27일 현재 기준임

자료 :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

2)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

(1) 지원금액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은 2012년까지 500억원 규모로 운용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200억원 감액한 300억원, 2015년 부터는 100억원을 추가로 감액하여 총 200억원 규모로 2016년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음.
 - 실제 지원실적은 2014년까지 계획금액 대비 지원금액이 매우 저조하였으나 2015년에는 전액 소진되었음.
- 따라서 2012년 대비 2016년 현재 300억원이 감액되었는데, 2015년 계획금액 200억원이 모두 소진된 점을 감안하여 2016년도에도 모두 소진될 경우, 다시 계획금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음.

(2) 지원 업체수 및 업체당 평균 지원금액

- 지원업체수는 2010년과 2011년 각각 41개와 27개 기업으로 비교적 많았으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대폭 감소하여 6~9개 업체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 들어 28개 업체로 증가하였음.

- 업체당 평균 지원금액은 2012년까지는 367~460백만원 수준이었으나 2013년 798백만원으로 높아진 이후 2015년 현재 714백만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따라서 2016년도와 향후에도 지원 계획금액이 모두 소진될 뿐만 아니라 업체당 평균 지원금액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표 2-11> 대전광역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지원 계획	20,000	30,000	30,000	50,000	50,000	50,000	
지원 실적	업 체 수	28	6	9	6	27	41
	지원금액	20,000	4,160	7,190	4,420	12,433	15,050
	업체평균	714.3	693.3	798.9	736.7	460.5	367.1

주 : 2012년은 12월 27일 현재 기준임

자료 :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

3)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1) 지원금액

-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은 2014년 100억원 규모를 제외하고는 2011년부터는 200억원 규모로 2016년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음.
 - 실제 지원실적은 2012년까지는 전액 소진하지는 못하였으나 2013년은 계획금액을 초과하여 지원하였고, 이후는 지원계획금액을 모두 소진하여 지원하고 있음.

(2) 지원 업체수 및 업체당 평균 지원금액

- 지원업체수는 매년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2013년 107개까지 증가하였으나 2014년 32개 업체로 감소하기도 한 이후 2015년 들어 84개 업체로 다시 증가하였음.
- 업체당 평균 지원금액 역시 매년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지원업체수가 가장 많았던 2013년 356백만원까지 지원하였으나 이후 2014년부터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2014년은 지원계획금액이 감소한 때문이며, 2015년은 지원계획금액이 증가하였지만 지원업체수가 대폭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2014년보다 100억원 증액한 200억원이 모두 소진되고 지원업체수도 대폭 증가한 점을 감안하여, 2016년에도 계획자금이 모두 소진될 경우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을 증액할 필요가 있을 것임.

<표 2-12> 대전광역시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4	2013	2012	2011
지원 계획		20,000	10,000	30,000	20,000	20,000
지원 실적	업 체 수	84	32	107	38	19
	지원금액	20,000	10,000	38,147	10,167	5,377
	업체평균	238.1	312.5	356.5	267.6	283.0

주 : 2012년은 12월 27일 현재 기준임

자료 :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

2. 유형별 지원실적

1) 경영안정자금

(1) 유형별 업체수

- 경영안정자금은 지역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일반기업의 이차보전율은 2%로 책정하고 우대기업은 그보다 높은 3.0%로 책정하여 시행함.
 - 일반기업과 우대기업의 전체적인 지원업체수는 일반기업이 2015년 현재 2배 이상 많음
 - 일반기업과 우대기업의 전체적인 지원업체수 변화는 2011년 일반기업이 1,085개로 우대기업 280개의 3.9배였으나 일반기업 지원업체수는 감소한 반면 우대기업은 등락을 반복하면서 증가함에 따라 그 격차는 축소되었음
- 일반기업 지원 업체수는 2011년 1,065개에서 2015년 900개 업체로 감소하는 추세임. 다만, 2015년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음.
- 우대기업 중 지원업체가 가장 많은 유형은 여성기업이며, 이어서 벤처기업, 수출기업, 이노비즈기업과 장애인기업, 시 지정 유망기업, 전입기업 순임.
 - 여성기업의 지원업체수는 2011년 115개에서 이후 등락을 반복하면서 2015년 185개로 증가하였음.
 - 벤처기업과 수출기업 이노비즈기업, 시 지정 유망 중소기업은 연차별 지속적으로 증가
 - 장애인기업은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전입기업은 등락을 반복하지만 연차별 유사한 수준임

(2) 유형별 지원금액

- 일반기업은 지원업체수가 감소함에 따라 지원금액도 감소함. 다만 2015년은 전년대비 지원업체수가 소폭 증가함에 따라 지원금액도 소폭 증가함.

<표 2-13> 대전광역시 경영안정자금 유형별 지원실적

구 분	업체수 (개)					추천액 (백만원)					
	2015	2014	2013	2012	2011	2015	2014	2013	2012	2011	
일반기업 (2%)	900	867	1,003	1,075	1,085	124,746	120,856	135,366	155,449	160,489	
우대기업 (3.0%)	소계	422	297	476	275	280	70,903	44,093	84,037	38,551	39,508
	여성기업	185	140	173	114	115	19,370	14,107	18,403	11,421	12,312
	벤처기업	140	93	161	98	71	30,981	16,228	33,300	16,461	11,048
	수출기업	35	16	56	14	26	12,020	5,150	20,810	4,060	8,641
	이노비즈	12	4	14	3	4	3,450	1,080	3,784	700	683
	전입기업	9	15	9	7	10	1,235	4,150	2,500	1,400	1,465
	장애인기업	12	14	15	10	16	1,127	1,323	1,820	880	1,467
	고용우수	2	0	0	1	3	170	0	0	300	1,100
	청년창업	3	0	5	0	0	150	0	170	0	0
	뿌리기업	1	2	1	0	0	200	385	120	0	0
	시 유망	10	5	3	6	1	2,850	820	421	1,392	200
	연구원창업	1	6	2	0	0	50	450	150	0	0
	재해·향토	2	0	0	0	2	250	0	0	0	500
	중 기업	1	0	1	0	0	300	0	300	0	0
매출의탑	0	2	1	1	1	0	400	200	200	200	
의료기기	0	0	34	21	31	0	0	1,859	1,737	1,901	

주1) 2015년 우대기업 메인비즈 9개 업체 1,750백만원 포함, 2013년 우대기업 녹색인증 1개 업체 200백만원 포함

주2) 2012년 이차보전을 우대기업 의료기기 4.0%

주3) 2010년 이차보전을 일반기업 2.5%, 우대기업 3.5%, 의료기기 4.5%

자료 :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

- 우대기업 역시 지원업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원금액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우대기업 모두 대체로 지원업체수 등락에 따라 지원금액도 등락을 함께하고 있음
 - 여성기업은 사업체수 증가만큼 지원금액의 증가 폭이 크지 않고, 벤처기업은 지원금액이 가장 많은 유형이며, 이노비즈기업과 유망 중소기업의 지원금액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유형임.

2)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

(1) 유형별 업체수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은 성장 가능성 높은 기업에게 창업사업화자금을 지원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사업임. 이를 위해 2016년 현재 12개 유형 우대기업은 2.0%, 일반기업은 1.0%의 이차보전율을 책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일반기업과 우대기업의 전체적인 지원업체수는 2015년 현재 우대기업이 일반기업보다 3배에 이룸
 - 우대기업의 지원업체수 변화는 2010년 당시 37개 업체에 이르렀으나 이후 대폭 감소하였고, 2015년에 21개 업체로 급증하였음.
 - 일반기업의 지원업체수 역시 2011년 10개 업체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대폭 감소하였고, 2015년에 7개 업체로 다시 증가하였음.
- 우대기업 중 지원업체가 가장 많은 유형은 벤처기업이며, 여성기업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나 2010년과 2011년보다 다소 감소한 편이며 최근에는 유망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추세임. 테크노벨리입주기업은 2010년에 22개 기업으로 많았으나 이후 대폭 감소하여 2013년부터는 지원업체가 없는 상황임.

(2) 유형별 지원금액

- 일반기업은 지원업체수의 증감에 따라 지원금액도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 다만 2013년 지원업체가 4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액이 최대를 기록하였으나 2015년 지원업체가 7개 기업임에도 오히려 지원금액은 대폭 감소하였음.
- 우대기업 역시 지원업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원금액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일반기업과는 달리 지원업체의 증가를 감안해도 지원금액은 대폭 증가하고 있어 우대기업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2-14> 대전광역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 유형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	합 계	일 반 기 업	우대기업(2.0%)								
				소 계	벤 치 기 업	유 망 기 업	여 성 기 업	대 학 창 업	테 크 노 벨 리 업 주	장 애 인 기 업	고 용 우 수 장 애 인	전 입 기 업
추천 업체수	2015	28	7	21	12	4	4	1	0	0	0	0
	2014	6	0	6	1	1	4	0	0	0	0	0
	2013	9	4	5	3	0	1	0	0	1	0	0
	2012	6	2	4	2	0	0	0	2	0	0	0
	2011	27	10	17	8	0	6	0	1	0	2	0
	2010	41	4	37	5	0	5	0	22	0	0	5
금 액	2015	20,000	2,355	17,645	11,705	2,900	2,600	440	0	0	0	
	2014	4,160	0	4,160	1,300	300	2,560	0	0	0	0	
	2013	7,190	3,110	4,080	2,950	0	130	0	0	1,000	0	
	2012	4,420	1,860	2,560	1,500	0	0	0	1,060	0	0	
	2011	12,433	2,867	9,566	4,131	0	3,745	0	540	0	1,150	
	2010	15,050	640	14,410	3,448	0	689	0	6,663	0	0	3,160

자료 :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

- 2015년에 지원업체와 지원금액이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시설투자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금 지원확대(1%↑)로 이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벤처기업의 지원금액 비중이 두드러진 편이며, 최근에는 유망기업에 대한 지원금액도 대폭 증가하고 있음.
-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금액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며, 2015년에는 대학창업에 대한 지원도 신설되어 청년층 창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있음.

3) 구매조건 생산지원사업자금

(1) 유형별 업체수

- 구매조건 생산지원사업자금은 초기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납품 및 계약서만으로도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기업의 매출증대 생산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 일반기업과 우대기업의 전체적인 지원업체수는 2015년 현재 우대기업이 일반기업보다 2배에 이룸
 - 우대기업의 지원업체수 변화는 2013년 69개 업체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4년 24개 업체로 대폭 감소한 이후 2015년 현재 62개 업체로 다소 회복하였음.
 - 일반기업의 지원업체수 역시 우대기업과 마찬가지로 2013년 38개 업체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4년 대폭 감소하였고, 이후 2015년 현재 22개 업체로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2014년에는 매우 못 미치는 수준임.
- 우대기업 중 지원업체는 벤처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수출기업이 다소 있는 편이고 이노비즈기업은 2013년 4개 업체에서 이후 감소하여 2015년 현재 1개 기업에 그치고 있음.

(2) 유형별 지원금액

- 일반기업은 지원업체수의 증감에 따라 지원금액도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 다만 2013년 지원업체가 38개로 많아짐에 따라 지원금액도 대폭 증가하였으나 2015년에는 22개 업체로 비교적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액은 대폭 감소하였음.
- 우대기업 역시 지원업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원금액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일반기업과 유사하게 2013년 지원업체가 69개로 많아짐에 따라 지원금액도 대폭 증가하였으나 2015년에는 62개 업체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액은 2013년 대비 대폭 감소하였음.
 - 유형별로는 벤처기업의 지원금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기업과 이노비즈 기업 여성기업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2-15> 대전광역시 구매조건 생산지원사업자금 유형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합계	일반 기업	소계	여성 기업	벤처 기업	이노 비즈	장애인 기업	연구원 창업	유망 기업	매출 의탁	고용 우수	수출 기업
업체수	2015	84	22	62	1	50	1	0	0	1	0	0	9
	2014	32	9	23	1	17	2	0	0	0	0	0	3
	2013	107	38	69	1	53	4	0	0	1	0	1	9
	2012	38	11	27	1	16	2	0	0	0	0	1	7
	2011	19	4	15	1	9	1	0	0	0	0	1	3
지원액	2015	20,000	4,500	15,500	300	12,550	150	0	0	300	0	0	2,200
	2014	10,000	2,570	7,430	200	5,830	500	0	0	0	0	0	900
	2013	38,147	12,517	25,630	200	21,080	1,400	0	0	200	0	300	2,450
	2012	10,167	2,717	7,450	200	4,700	400	0	0	0	0	300	1,850
	2011	5,377	1,077	4,300	200	2,600	300	0	0	0	0	300	900

자료 :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

- 다만, 여성기업을 제외하고는 업체당 평균 지원금액은 벤처기업, 수출기업, 이노비즈 기업 등 모두 감소하고 있음.

3. 업종별 지원실적(경영안정자금)

1) 업종별 업체수 분포

- 경영안정자금의 업종별 지원실적을 보면 2015년 총 1,322개 지원업체 중제조업이 648개 업체로 가장 많고 제조관련이 441개업체로 많아 제조업 및 제조관련업체가 모두 1,089개로 전체의 82.4%를 차지하고 있음
 - 건설업은 2015년 648개 업체, 서비스업이 84개 업체, 운수업이 19개 업체 순임
 - 제조업은 2010년 894개 업체에서 2011년 929개로 증가하기도 하였으나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한 후 2015년 소폭 증가함.
 - 제조관련은 2010년 103개에서 2014년 461개로 4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2015년 소폭 감소
 - 기타 건설업, 운수업, 서비스업 모두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2015년 현재 2010년보다 소폭 감소하였음

2) 업종별 지원금액과 업체당 평균 분포

- 업종별 지원금액은 지원업체수의 증감에 따라 등락을 함께하면서 대체로 감소하였음
 - 지원업체수가 가장 많은 제조업의 지원금액은 지원업체의 증감에 따라 등락을 함께 하면서 감소하였음. 다만 2015년의 업체당 평균 지원금액은 2014년 117백만원에서 2015년 732백만원으로 6.3배 만큼 대폭 증가하였음

- 제조관련 업체의 지원금액은 업체수의 증가에 따라 전체 지원금액도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5년의 업체당 평균 지원금액은 489백만원으로 2014년 대비 3.1배 증가하였음

<표 2-16> 대전광역시 경영안정자금 업종별 지원실적

구 분	연도	업종별 실적				
		제조업	건설업	제조관련	운수업	서비스업
업 체 수 (개)	2015	648	130	441	19	84
	2014	459	144	461	26	74
	2013	776	148	411	40	104
	2012	883	156	187	27	97
	2011	929	165	168	24	79
	2010	894	135	103	28	97
금 액 (백만원)	2015	85,691	18,587	77,788	2,420	14,163
	2014	53,713	23,429	73,346	3,420	11,041
	2013	102,638	24,828	72,029	4,477	15,431
	2012	115,683	24,222	34,356	3,120	16,619
	2011	129,131	26,040	28,972	3,524	12,330
	2010	134,490	25,097	21,723	3,763	14,914
업체평균 (백만원)	2015	732	115	489	127	169
	2014	117	162	159	131	149
	2013	132	168	175	112	148
	2012	131	155	183	115	171
	2011	139	158	172	147	156
	2010	150	186	211	134	154

주 : 2012년은 12월 27일 현재 기준임
 자료 :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

- 기타 건설업, 운수업, 서비스업의 지원금액은 지원업체수의 증감에 따라 등락을 함께 하면서 대체로 감소하였으며, 업체당 평균 지원금액도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음. 다만 서비스업의 경우 2015년 업체당 평균 지원금액이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음

제 3 장

정책자금 지원성과 검토

제1절 중소기업의 구성과 변화

제2절 정책자금 지원성과 조사

제 3 장 정책자금 지원성과 검토

제1절 중소기업의 구성과 변화

1.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변화 추이

1) 기업규모별 사업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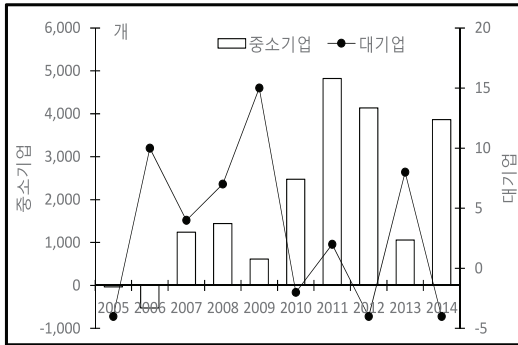
- 최근 10년간 기업부문 경제주체의 활동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사업체수 변화를 보면, 2005년 이후 2010년까지 전체 사업체수는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 전체적으로 경제활동은 꾸준하였던 것으로 평가됨. 기업 규모별로도 구분한 규모별 모두 일부 년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3-1〉 대전 전산업 규모별 사업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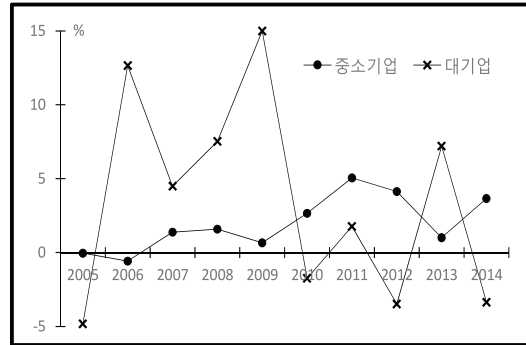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90,366	89,851	91,097	92,548	93,176	95,650	100,474	104,609	105,676	109,535
1~4명	77,128	76,603	77,120	77,950	78,230	81,058	84,719	87,477	87,604	90,737
5~9명	7,716	7,664	8,085	8,426	8,557	7,681	8,546	10,034	10,535	10,982
10~19명	3,038	3,022	3,247	3,282	3,360	3,583	3,856	3,785	4,088	4,226
20~49명	1,581	1,630	1,678	1,824	1,883	2,108	2,096	2,054	2,133	2,228
50~99명	573	583	596	666	700	739	778	769	815	848
100~299명	251	260	278	300	331	368	364	379	382	399
300~499명	33	35	40	47	63	56	54	55	63	57
500~999명	32	43	39	39	34	34	40	35	33	35
1,000명 이상	14	11	14	14	18	23	21	21	23	23

- 종사자수 300인을 기준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구분하여 보면, 2009년까지는 대기업 사업체가 중소기업 사업체수보다 증가율이 높았으나 2010년 이후부터는 2013년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 사업체수 증가율이 대기업보다 높았음.

<그림 3-1> 전산업 사업체수 증감



<그림 3-2> 전산업 사업체수 증감률



2) 기업규모별 종사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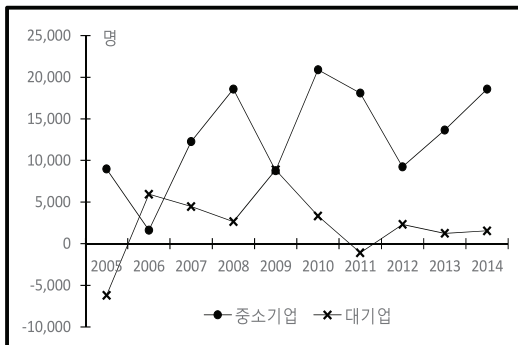
- 대전지역 전산업 전사업체의 종사자수의 최근 10년간 변화를 보면, 총종사자는 2005년 405,311명에서 2014년 556,297명에 이르기까지 매년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음.
-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규모에서는 구분한 규모별 일시적인 등락은 있었으나 꾸준한 증가를 보였고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에서도 대체로 등락을 반복하면서도 많은 종사자수 증가를 보였음. 다만 500~999명 규모의 기업에서는 10년간 종사자수가 감소한 연도가 더 많아 2005년 대비 2014년의 종사자수는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음.
-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구분하여 보면, 전사업체 종사자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2006년을 제외하고는 더 많은 종사자수 증가를 보였고, 매년 증감률은 대

기업의 증감률 등락폭은 큰 반면 중소기업의 증감률 등락폭은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어 중소기업의 종사자수가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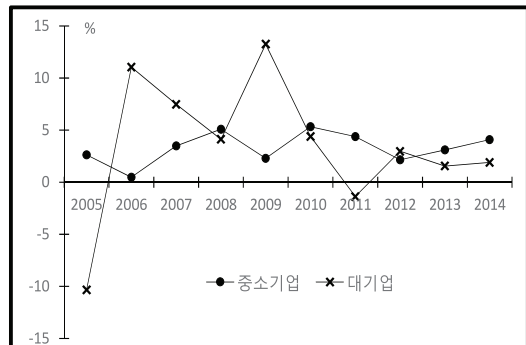
<표 3-2> 대전 전산업 규모별 종사자수 추이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405,311	412,889	429,632	450,857	468,501	492,722	509,740	521,281	536,181	556,297
1~4명	135,949	133,063	135,609	137,230	137,853	144,636	150,801	152,699	153,914	159,883
5~9명	48,625	48,649	51,157	53,408	54,132	49,671	55,543	63,573	66,605	69,464
10~19명	40,000	39,924	42,800	43,297	44,036	47,293	50,266	49,711	53,695	55,526
20~49명	46,927	49,235	50,269	54,980	56,556	63,749	63,036	62,334	64,796	68,213
50~99명	38,844	39,881	40,726	45,744	47,649	51,335	53,535	52,775	56,032	57,134
100~299명	41,072	42,293	44,755	49,232	52,436	56,876	58,490	59,810	59,515	62,908
300~499명	12,941	13,657	15,273	17,546	23,932	21,481	20,561	20,905	23,421	22,235
500~999명	21,502	29,216	26,604	26,799	23,736	22,216	26,777	24,897	22,347	23,673
1000명 이상	19,451	16,971	22,439	22,621	28,171	35,465	30,731	34,577	35,856	37,261

<그림 3-3> 전산업 종사자수 증감



<그림 3-4> 전산업 종사자수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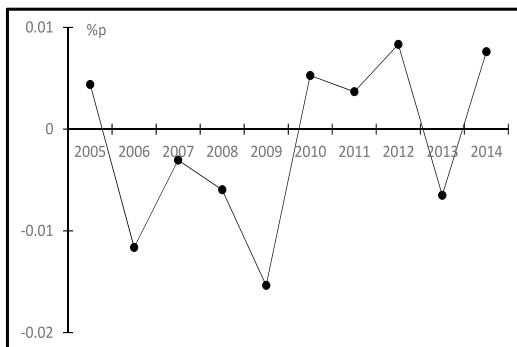
4) 전산업 중소기업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비중 추이

- 대전지역 전산업 중소기업 사업체수 비중은 최근 10년간 다소 등락은 반복하고 있으나 대체로 99.9%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이와 함께 종사자수 비중은 대기업의 종사자수가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 종사자수 비중은 역시 등락을 반복하면서 85%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05년 대비 2014년 현재의 중소기업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비중은 각각 아주 소폭 비중이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대전지역의 사업체는 거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에 따라 일자리도 중소기업이 85% 수준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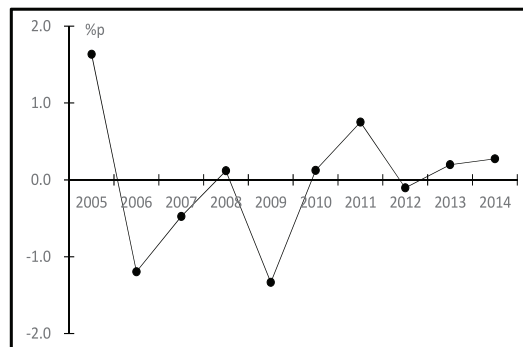
<표 3-3> 대전 전산업 중소기업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비중 추이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사업체(%)	99.91	99.90	99.90	99.89	99.88	99.88	99.89	99.89	99.89	99.90
종사자(%)	85.1	86.7	85.5	85.0	85.1	83.8	83.9	84.7	84.6	84.8

<그림 3-5> 중소기업 사업체 비중 증감



<그림 3-6>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 증감



5) 10인 이상 제조중소기업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 10인 이상 제조업체 수는 2005년 647개에서 이후 최근 10년간 2008년과 2013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현재 847개 업체가 입주하여 기업활동을 하고 있음.
- 이 중에서 중소제조업체 역시 2008년과 2012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현재 831개를 기록하고 있고, 전체 제조기업 대비 중소제조기업의 비중은 98.0%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2005년 대비 2014년은 0.2%p 감소하였음.

<표 3-4> 대전 1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수와 비중 추이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 기 업(개)	647	685	718	683	728	796	833	798	841	847
중소기업(개)	636	673	706	669	715	782	818	781	826	831
비 중(%)	98.3	98.2	98.3	98.0	98.2	98.2	98.2	97.9	98.2	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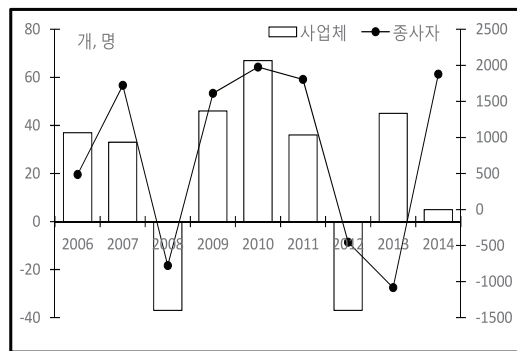
- 10인 이상 제조업체의 종사자수는 2005년 30,463명에서 증감을 반복하면서 2014년 40,789명에 이르기까지 증가하였음. 이 중에서 중소제조업체의 종사자 역시 2005년 21,682명에서 증감을 반복하면서 2014년 28,846명으로 증가하였음.
- 이에 따라 전체 제조기업 대비 중소제조기업 종사자수 비중은 2005년 71.2%에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2009년 한 때 75.1%까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여 2014년 70.7%를 기록함으로써 2005년 대비 비중이 0.5%p 하락하였음.
- 또한, 1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의 전년대비 증감 추이를 보

면 업체수가 증가할 때 종사자수도 증가하는 동행 추세를 보였음. 다만 2013년은 예외적으로 사업체수가 증가할 때 종사자수가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으며, 2014년은 사업체수가 소폭 증가한 반면 종사자는 대폭 증가하였음.

<표 3-5> 대전 10인 이상 제조업 종사자수와 비중 추이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 기 업	30,463	30,270	32,365	32,108	32,925	36,753	38,739	38,772	37,471	40,789
중소기업	21,682	22,169	23,890	23,112	24,724	26,700	28,505	28,052	26,967	28,846
비 중	71.2	73.2	73.8	72.0	75.1	72.6	73.6	72.4	72.0	70.7

<그림 3-7> 대전 1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전년대비 증감



2. 주요 경영지표 변화 추이

1) 10인 이상 제조업체 1인당 실질임금

- 10인 이상 제조업체 1인당 실질임금의 2005년 이후 10년간 변화 추이를 보면, 중소기업은 2009년을 제외하고는 소폭씩 상승하였으나, 대기업은 2008년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보다 높은 폭으로 실질임금이 상승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

과 대기업간의 1인당 실질임금 격차는 2008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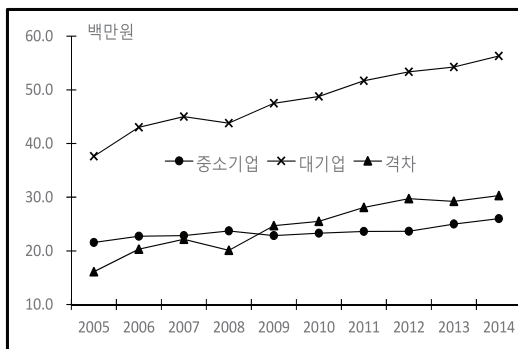
- 연도별 실질임금상승률을 볼 때, 대기업이 2008년과 2013년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보다 높은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는 셈임. 따라서 99.9% 이상이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경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우수 인재의 영입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이 추진되어야 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표 3-6> 대전 10인 이상 제조업 1인당 실질임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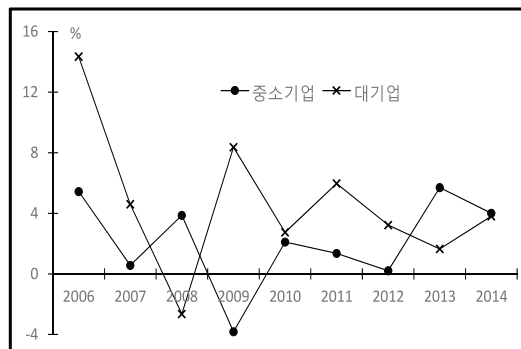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중소기업	21.5	22.7	22.8	23.7	22.8	23.3	23.6	23.7	25.0	26.0
대기업	37.6	43.0	45.0	43.8	47.5	48.8	51.7	53.4	54.2	56.3
격차	16.1	20.3	22.2	20.1	24.7	25.5	28.1	29.7	29.2	30.3

<그림 3-8> 1인당 실질임금



<그림 3-9> 1인당 실질임금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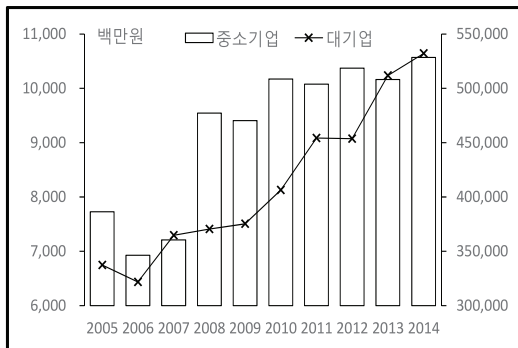


주 : 대전 10인 이상 제조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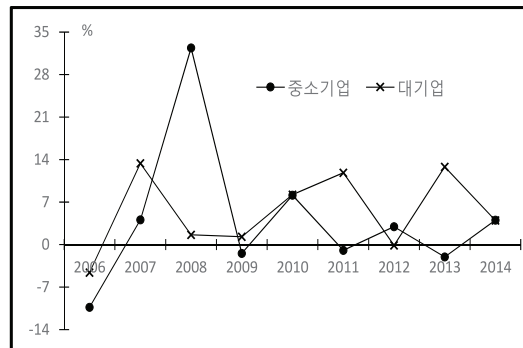
2) 10인 이상 제조업체 1사업체당 출하액

- 10인 이상 제조업체 1사업체당 출하액의 2005년 이후 10년간 변화 추이를 보면, 중소기업은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추세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2006년과 2013년은 오히려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8년 대폭 증가한 이후 2014년 현재까지 등락을 반복하면서 증가폭은 매우 소폭에 그치고 있음.
- 반면 대기업 출하액은 2006년 한 때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출하액이 중소기업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1사업체당 연도별 출하액 증가율도 2008년과 2012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3-10> 1사업체당 출하액



<그림 3-11> 1사업체당 출하액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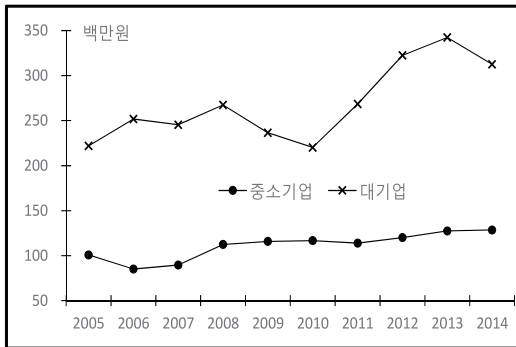


3) 10인 이상 제조업체 노동생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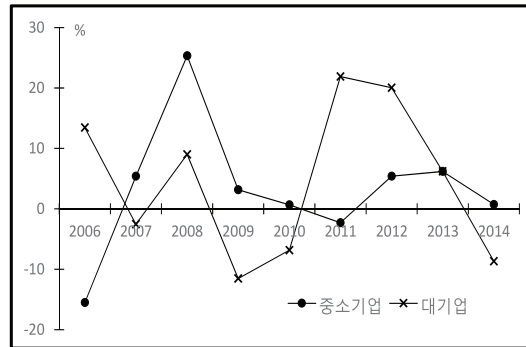
- 10인 이상 제조업체의 노동생산성의 2005년 이후 10년간 변화 추이를 보면, 중소기업은 2006년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완만하게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반면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노동생산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2007년, 2009년과 2010년에 소폭씩 하락하기도 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매우 빠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과거 2008년에는 중소기업이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최근 2011년과 2012년에는 대기업이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그림 3-12> 노동생산성



<그림 3-13> 노동생산성 증가율



제2절 정책자금 지원성과 조사

1. 정책자금과 인건비 활용 용도

1) 정책자금 활용 용도

- 정책자금으로 용자받은 자금을 주로 활용한 용도는 절반 가까운 기업들이 운전자금(43.6%)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였으며, 이어서 시설자금(16.2%), 원자재 등 재료비(15.4%) 등으로 활용하였음.
- 그러나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는 기술개발이나 인력 확보는 각각 5.3%, 3.8% 수준으로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음.

<표 3-7> 지원자금 활용 용도

(단위 : %, 개)

구 분	운전자금	시설자금	인력확보	직원 교육훈련	판로개척 등 마케팅	기술개발	제품생산
구성비	43.6	16.2	3.8	0.0	1.9	5.3	5.3
구 분	수출관련	원자재 등 재료비	홍보 등 관측활동	일반관리비	기타	합계	
구성비	0.4	15.4	2.6	4.9	0.8	100.0 (266)	

주) 다중응답이며, ()는 응답수임

2) 인건비 활용 용도

- 정책자금으로 용자받은 자금 중에서 인건비는 중소기업 대부분이 기존인력의 인건비 보전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융자금의 인건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매우 낮음으로써 정책자금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향후에는 융자금의 인건비가 신규 일자리창출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인건비 중 일정규모 이상 신규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표 3-8> 인건비 활용 용도

(단위 : %, 개)

구 분	기존인력 인건비 보전	신규 정규인력 채용	신규 임시직 등 비정규직 채용	인턴사원 채용	기타	합계
구성비	70.7	18.1	4.3	2.6	4.3	100.0 (116)

주) ()는 응답수임

2. 기업 경영에 미친 영향

1) 정책자금이 기업 경영에 미친 영향

- 정책자금이 기업의 다양한 경영환경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정책자금이 기업의 경영환경에 가장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친 부문은 장기·저리의 정책자금 이용으로 경영부담이 경감된 것을 들었음.
 - 또한 업체의 생산성 증대, 시설 가동률 등 사업운영 규모 확대, 시중은행과 거래처로부터 신용 상승, 신규 사업 분야 및 영역 진출 등의 부문에서 정책자금 활용이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다만, 기존 근로자에 대한 임금 상승에는 일정부분 기여하지만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신규 근로자의 추가 고용에도 기대만큼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종합하면, 정책자금이 경영부담 경감, 생산성 증대, 사업운영 규모 확대, 신용 상승, 신규 사업 및 영역 진출 등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신규 근로자의 추가 고용에는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정책자금이 기업의 생산비용을 높이는 임금 상승과 신규 근로자 채용 등에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표 3-9> 정책자금이 경영환경에 미친 영향

(단위 : %, 개)

항 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장기·저리의 정책자금 이용으로 경영부담 경감	2.3	3.8	15.0	38.3	40.6	100.0 (133)
시설 가동률 등 사업운영 규모 확대	1.9	6.5	32.4	34.3	25.0	100.0 (108)
업체의 생산성 증대	1.0	5.9	33.7	32.7	26.7	100.0 (101)
기존 근로자에 대한 임금 상승	1.0	12.4	49.5	25.8	11.3	100.0 (97)
신규 근로자의 추가 고용	3.2	17.0	48.9	18.1	12.8	100.0 (94)
시중은행과 거래처로 부터 신용 상승	3.0	8.0	33.0	37.0	19.0	100.0 (100)
신규 사업 분야 및 영역 진출	5.1	11.2	39.8	25.5	18.4	100.0 (98)

주) ()는 응답수임

2) 정책자금이 생산·매출·고용에 미친 영향

(1) 정책자금이 주요 경영지표에 미친 영향

- 정책자금이 기업의 주요 경영지표인 생산과 매출, 고용에 미친 영향은 대체로 생산과 매출에는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고용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생산과 매출에 필적할 만한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됨.
 - 정책자금 지원이 기업의 생산과 매출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응답이 각각 전체의 74.0%, 64.6%에 이를 정도로 대부분의 기업에서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반면, 고용에 미친 영향은 앞서서의 분석과 같이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음.

<표 3-10> 정책자금이 주요 경영지표에 미친 영향

(단위 : %, 개)

구 분	전혀 없다	대체로 작다	보통	대체로 크다	매우 크다	합계
생 산	0.0	3.7	22.2	40.7	33.3	100.0 (108)
매 출	0.8	2.3	32.3	36.9	27.7	100.0 (130)
고 용	10.5	8.6	41.9	25.7	13.3	100.0 (105)

주) ()는 응답수임

- 정책자금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는 경영지표 부문은 경영 안정이 가장 많았으며, 기타 매출 증대에도 어느 정도 정책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고용 증대와 생산성 향상에는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이 확인되고 있음.
 - 정책자금이 가장 도움이 된 부분은 경영 안정 75.8%
 - 기타 매출 증대 17.0%, 생산성 향상 5.2%, 고용증대 1.3% 등

<표 3-11> 정책자금이 가장 도움된 부분

(단위 : %, 개)

항목	경영 안정	매출 증대	고용 증대	생산성 향상	기타	합계
구성비	75.8	17.0	1.3	5.2	0.7	100.0 (153)

주) ()는 응답수임

(2) 정책자금 용자 전과 후의 경영지표 증감

- 정책자금의 지원효과를 좀 더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정책자금을 용자 받기 전년도와 용자받은 후년도의 경영효과를 조사한 결과,
 - 생산은 기업당 2억5천2백만원의 증가효과 측정
 - 매출은 기업당 1억9천8백만원의 증가효과 측정
 - 고용은 기업당 0.77명의 증가효과 측정

- 생산과 매출액은 기업당 비교적 큰 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으나, 고용은 기업당 채 1명이 안 되는 수준으로 증가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됨.

<표 3-12> 정책자금 용자 전과 후의 경영지표 변화

(단위 : 백만원, 개, 명)

구 분	생 산			매 출			고 용		
	총 액	업체수	기업평균	총 액	업체수	기업평균	총인원	업체수	기업평균
용자받기 전년도	51,048	50	1,021	152,738	82	1,863	517	40	12.93
용자받은 후년도	63,567	50	1,273	160,780	78	2,061	589	43	13.70
증감	12,519		252	8,042		198	72		0.77

3.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정책자금에 대한 불만사항

1) 기업 자력으로 필요 자금을 충분히 조달하지 못하는 이유

- 기업들이 투자활동을 위해서는 필요한 자금이 제 때 조달되어야 함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임. 그러나 기업이 자력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 담보가 부족하기 때문이 전체의 32.2%로 가장 많고
 - 대출한도가 부족하기 때문이 13.9%, 높은 금리 12.6%, 은행의 보수적 대출심사와 매출 부족이 각각 12.2%, 낮은 신용과 창업 초기기업이 각각 8.9% 등임
- 중소기업이 자력으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이유가 주로 담보의 부족이 가장 큰 이유이고, 대출한도 부족, 낮은 신용, 매출 부족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취약점이기도 함.
- 따라서 중소기업에게 필요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본질적으로 안고 있는 취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또는 그 이외의 다른 요인을 찾아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3-13> 기업 자력으로 필요 자금을 충분히 조달하지 못하는 이유

(단위 : %, 개)

항목	담보 부족	창업 초기 기업	매출 부족	높은 금리	대출한도 부족	낮은 신용	은행의 보수적 대출심사	합계
구성비	32.2	8.3	12.2	12.6	13.9	8.7	12.2	100.0 (230)

주) 다중응답이며, ()는 응답수임.

2)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이유

- 기업에게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착안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정책자금의 낮은 금리 때문이라는 이유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표 3-14>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이유

(단위 : %, 개)

항 목	낮은 금리	신용대출 가능 등 좋은 담보조건	기술과 사업성 위주의 기업 심사	대출금액이 커서
구성비	65.4	10.7	5.0	1.9
항 목	긴 대출 기간	적기 대출 가능	은행 대출이 곤란해서(담보 부족 등)	합계
구성비	3.8	3.1	10.1	100.0 (159)

주) ()는 응답수임.

3) 중소기업 자금조달 방편 : 동산담보대출

- 중소기업이 은행권으로부터의 대출시 담보 부족과 신용 대출의 어려움 때문에 자금조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다른 방편으로서 동산담보대출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그러나 동산담보대출 이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한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동산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음 : 88.7%
- 동산 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주로 금융기관이 취급을 기피하거나

이용절차가 복잡하고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됨.

- 금융기관의 취급 기피가 28.0%, 이용절차가 복잡하고 조건이 까다로워서가 26.0%로 가장 많음.
- 기타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거나 대출한도 등 조건도 좋지 않은 이유도 있음.

<표 3-15> 동산 담보대출 이용 여부와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 개)

동산 담보 대출 이용 여부	빈도수		구성비	동산 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이용한다	11	11.3	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	15	15.0	
이용하지 않는다	86	88.7	금융기관의 취급 기피	28	28.0	
합계	97	100.0	대출한도 등 조건이 좋지 않아서	12	12.0	
			이용절차가 복잡하고 조건이 까다로워서	26	26.0	
			타대출 이용 등 필요 없어서	12	12.0	
			기타	7	7.0	
			합계	100	100.0	

4) 정책자금에 대한 불만사항

-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이용할 시 불만사항으로는 신용대출이 곤란하고 담보와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지원자금 및 대출규모가 적으며, 지원·거래 절차 및 구비서류 복잡, 담보 부족 및 평가비율이 낮음, 대출기간이 단기 등의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신용대출 곤란 및 담보·보증 요구가 23.4%로 가장 불만이 많음
 - 또한, 지원자금 및 대출규모가 적음 15.9%, 지원·거래 절차 및 구비서류가 복

잡 12.1%, 담보 부족 및 평가비율이 낮음 10.9%, 대출기간이 단기 10.5% 등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 따라서 정책적으로 신용대출의 확대, 담보·보증요건의 완화, 지원자금 및 대출 규모의 확대, 지원·거래절차 및 구비서류의 간소화, 대출기간의 연장 등의 방안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표 3-16> 정책자금에 대한 불만사항

(단위 : %, 개)

불만 사항	신용대출 곤란 및 담보·보증 요구	예금 가입 등 꺾기 요구	대출금리가 높음	지원자금 및 대출규모가 적음
구성비	23.4	1.3	8.4	15.9
불만 사항	실적위주의 평가기준	대출기간이 단기	담보 부족 및 평가비율이 낮음	지원·거래 절차 및 구비 서류 복잡
구성비	5.0	10.5	10.9	12.1
불만 사항	지원자금의 정보 제공 및 서비스 부족	까다로운 대출심사	기타	합계
구성비	6.3	5.4	0.8	100.0 (239)

주) 다중응답이며, ()는 응답수임

제 4 장

정책자금 운용 개선방안

제1절 대전광역시 중심 추진방안

제2절 중앙정부 중심 추진방안

제 4 장 정책자금 운용 개선방안

제1절 대전광역시 중심 추진방안

1. 정책자금 이용 확대를 위한 방안

1) 홍보 확대

- 2013년 경영안정자금의 규모를 500억원 증가시켜 총2,500억원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지원업체수가 증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원금액도 2,000억원을 초과하지 못하고 있음이 앞의 설문조사결과에서 확인됨.
- 따라서 경영안정자금이 매년 모두 소진될 수 있도록 지역 모든 중소기업에게 직접방문이나 안내장을 송부하고,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임.

2) 지원 기업유형분야 확대

(1) 경영안정자금

- 현재 경영안정자금이 보다 많은 기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역산업육성계획 등을 고려하여 우대기업유형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현행 대전시는 기술집약형 벤처기업 확대를 위해 이노비즈기업과 연구원 창업, 시 지정 유망중소기업 등에 우대금리를 지원하고 있음

- 따라서 지역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지원업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지식서비스산업 등 지원업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은 분야에 속하는 유형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대금리 혜택을 줌으로써 경영안정자금의 이용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대전시의 주력산업 중 자체 육성산업인 국방산업분야의 중소기업체
 - 무담보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 소상공인 취약계층 : 다문화가족 소상공인, 자활기업 소상공인, 새터민 소상공인 등
- ※ 인천광역시의 경우, 고성장기업, 기술창업기업, 산업확충기업을 우대기업으로 지원하고 있음.

(2)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이 보다 많은 기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역산업육성계획 등을 고려하여 경영안정자금과 같이 우대기업유형을 확대하거나 우대금리를 인상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총지원금액 200억원이 모두 소진되고 있는 만큼 5대 주력산업 등에 속하는 산업군에 대하여 최근 우대기업 중 벤처기업이나 청년창업, 유망기업, 여성기업 등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총지원금액을 확대하거나 우대기업에 대한 우대금리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3) 무형자산 보유 기업에게 지원대상 확대 및 융자제한조건 개선

- 신기술이나 특허 등 미래가치를 지닌 무형자산 보유 창업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 등에게도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으로 확대를 검토할 수 있음.
- 대체인정 서류(구비서류)기준 확대를 통산 심사의 다양성을 확보

- 우량기업 기준에 해당은 되지만 일시적 경영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음.

3) 영세·소기업 자금지원신청 도우미 지원

- 종업원이 1~2명인 영세한 소기업은 지원서류 작성이나 구비서류 등에 대해 별도의 인력 확보가 어렵고, 복잡한 지원절차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어려운 실정.
- 따라서 영세·소기업의 경우 지원절차를 일부분 생략하거나 별도의 컨설턴트를 두어 일괄지원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음.

4)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우대범위 합리화

- 단기 운전자금이 부족한 업체를 경영안정자금 지원조건으로 추가 설정
- 우대기업과 일반기업 구분 없이 유동성지표 악화 정도 등 일정한 조건을 설정하여 경영안정자금의 본래 지원 목적과 의도에 부합하게 유동성 악화 업체에 지원되도록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운전자금의 확대와 신용보증지원 확대

1) 현재 경영난을 겪고 있는 주요 이유

- 시급하게 자금지원이 필요한 시책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우선 현재 경영난을 겪고 있는 주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주로 자금난과 판매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력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임.

- 현재 경영난을 겪고 있는 주된 이유 : 자금난 43.2%, 판매난 35.6%, 인력난 11.4% 등
- 따라서 자금조달과 판매부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의 수급도 상대적으로 중요한 부문임.

<표 4-1> 현재 경영난을 겪고 있는 주요 이유

(단위 : %, 개)

항목	판매난	자금난	인력난	기술난	원자재난	기타	합계
구성비	35.6	43.2	11.4	3.0	3.0	3.8	100.0 (132)

주) ()는 응답수임

2) 시급한 자금지원정책 : 운전자금과 신용보증지원 확대

- 현재 중소기업이 봉착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시급한 자금지원정책으로는 무엇보다 운전자금의 확대와 신용보증지원의 확대를 조사됨.
 - 운전자금지원 확대 45.4%, 신용보증지원 확대 32.5%
- 현재 운전자금과 신용보증에 대하여 모두 일정한 자격요건에 입각하여 모두 지원하고 있으나 운전자금의 경우 지원규모를 확대하거나 신용보증의 경우 자격요건을 현행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운전자금의 경우 현재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사업으로 시설자금 10억원과 운전자금 3억원을 합하여 총13억원 이내로 지원되고 있으며, 운전자금의 경우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시행되고 있음
 - 운전자금의 경우는 현행 3억원을 확대하거나 상환의 방법에서 거치와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신용보증의 경우 그 특성상 일정수준의 자격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대전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기업의 회생전망을 보다 심도 있게 진단하여 현행의 개별기업의 상황에 따라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음.

<표 4-2> 시급한 자금지원정책

(단위 : %, 개)

항목	신용보증지원 확대	운전자금지원 확대	판로개척·마케팅·판촉 등 지원 확대	시설자금지원 확대	무역금융지원 확대
구성비	32.5	45.4	8.0	5.5	1.2
항목	만기대출금 상환 연장	상업어음할인 확대	부도어음 상환요구 자제	기타	합계
구성비	6.1	0.6	0.6	0.0	100.0 (163)

주) ()는 응답수임

3. 정책자금의 지원한도 등 확대 검토

1) 경영안정자금의 지원한도 규모 확대

- 경영안정자금의 지원횟수는 현재 3회로 한정하고 있으나 기업들의 73.6%는 4회를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경영안정자금의 지원목적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자금난 해소에 있으므로 현행 3회로도 지원효과는 충분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다른 대안으로 지원횟수의 확대보다는 현행 2~5억원인 기업당 우대금리와 일반금리 지원한도 규모를 확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현재 지원한도는 일반기업 2억원, 전입기업과 재해기업 3억원, 수출기업 5억원 범위이지만, 지원횟수의 확대가 어렵다면 대안으로 이들 지원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우대기업의 경우 대구 10억원, 강원도 6억원~8억원, 경기도 5억원 수준이고, 일반기업의 경우 대구, 경기도, 강원도가 5억원, 제주도는 업종별 차등 적용하여 5억원, 울산은 4억원, 서울과 충북은 우대기업과 일반기업 구분하지 않고 5억원, 전북은 3억원 규모임.

- 대전은 다른 시·도의 규모를 비교하면 결과적으로 업체당 지원규모가 낮은 수준임.

<표 4-3> 경영안정자금의 희망 지원횟수 및 이차보전율

(단위 : %, 개)

지원횟수	2016년 현재	1회	2회	3회	4회	합계
구성비	3회	1.8	1.8	22.7	73.6	100.0 (110)
이차보전율	2016년 현재	1~2%	1.5~2.5%	2~3%	3~4%	합계
구성비	2~3%	9.3	8.3	21.3	61.1	100.0 (108)

주) ()는 응답수임

2)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 규모 확대 검토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의 실제 지원실적은 2014년까지 계획금액 대비 지원금액이 매우 저조하였으나 2015년에는 전액 소진되었음.
- 따라서 2012년 대비 2016년 현재 300억원이 감액되었는데, 2015년 계획금액 200억원이 모두 소진된 점을 감안하여 2016년도에도 모두 소진될 경우, 다시 계획금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2016년도와 향후에도 지원 계획금액이 모두 소진될 뿐만 아니라 업체당 지원금액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대책 마련 필요

3)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의 지원내용 검토 : 현행 1회 → 확대 희망

-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의 지원횟수는 현재 1회로 한정하고 있으나 기업들의 97.6%(2회 15.7%, 3회 16.9%, 4회 65.1%)는 2회 이상을 희망하고 있음.
 - 그러나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의 지원목적이 초기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납품 및 계약서만으로도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매출증대 생산효과를 도모하는데 있음을 감안할 때, 초기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지원기회가 돌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미 혜택을 받은 업체에게 2회 이상 연이어 지원하는 것은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은 2012년까지는 전액 소진하지는 못하였으나 2013년은 초과 하여 지원한 이후 2014년부터는 모두 소진하고 있음. 2015년은 100억원 증액한 200억원이 모두 소진되었고 지원업체수도 대폭 증가한 점을 감안하여, 2016년에도 계획자금이 모두 소진될 경우 자금을 증액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지원횟수의 확대보다는 다음 방안들을 검토할 수 있음.
 - 첫째, 현행 기업당 5억원인 지원한도를 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그러나 이 방안은 1기업당 5억원도 상당 수준이므로 기업에 따르는 상황에 부담이 될 수도 있음.
 - 둘째, 2016년 현재 총지원규모가 300억원인데 매년 지원실적금액이 모두 소진되고 있는 만큼 총지원규모를 100억원 이상 증액하여 현행 지원조건으로 지원업체를 확대하는 방안.
 - 셋째 1기업당 지원한도를 3억 또는 4억으로 축소하고 대신 자금의 운용이나 상환내역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업에게 2차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넷째, 용자기간을 현행 2년 거치 일시상환에서 거치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거나 일시상환도 2년 이상 상환으로 연장하는 방안

<표 4-4>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희망 지원횟수

(단위 : %, 개)

2016 현재 지원횟수 : 1회	희망지원 횟수	1회	2회	3회	4회	합계
	구성비		2.4	15.7	16.9	65.1

주) ()는 응답수임

4. 용자기간 연장 또는 이차보전을 상향 검토

1)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을 : 현행 2~3% → 3~4% 희망

-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대출은행 금리에 이차보전해 주는 이자율은 현행 우대기업 3%, 일반기업 2%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기업들은 우대기업 4%, 일반기업 3%로 상향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 따라서 이차보전 이자율을 우대기업이나 일반기업에 대하여 각각 현행 각각 3%, 2%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 경북의 경우 3.0~5.0% 지원
 - 그러나 현재 기준금리가 매우 낮고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금리도 대체로 낮은 점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는 이차보전율의 상향조정은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 ※ 2016년 현재 강원도만 우대기업에 대하여 최대 4.0%까지 지원할 뿐, 전북, 인천, 충북 등 대부분의 시·도는 현재 대전의 이차보전 이자율과 마찬가지로 일반기업 2.0%에서 우대기업 3.0%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음.

- 따라서 이차보전을 상향도 중요한 검토대상이지만, 대안으로 현행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을 만기기간을 3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또는 일시상환을 2년 이상 등으로 용자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강원도가 기본 2년에 연장 2년으로 최대 4년, 서울이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 전북이 2년 거치 2년 상환(또는 일시상환), 경기도가 1년 거치 3~4년으로 대전이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보다 용자기간이 긴 것으로 조사됨.

2)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 이차보전을 : 현행 1~2% → 1.5~2.5% 희망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에 대한 대출은행 금리에 이차보전해 주는 이자율은 현행 우대기업 2%, 일반기업 1%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기업들은 우대기업 2.5%, 일반기업 1.5%로 상향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 따라서 이차보전 이자율을 우대기업이나 일반기업에 대하여 각각 현행 각각 2.5%, 1.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그러나 2014년까지 총지원금액 300억원이 모두 소진되지 않았으나, 2015년부터 200억원으로 감액한 이후 모두 소진된 점을 감안할 때, 이차보전 이자율을 상향하는 방안은 이용하려는 기업들이 현재보다 더욱 많아져 지원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이차보전을 상향을 검토할 경우에는 총지원금액 현행 200억원을 300억원 등으로 증액하여 더 많은 기업이 이용하려는 과당경쟁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임.

<표 4-5>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 희망 이차보전율

(단위 : %, 개)

2016 현재 이차보전율 1~2%	희망 이차보전율	0~1%	0.5~1.5%	1~2%	1.5%~2.5%	합계
	구성비	8.9	7.8	13.3	70.0	100.0 (90)

주) ()는 응답수임

5. 재무와 신용상태에 중요도를 고려한 배분 기준

1) 선정시 가장 중요한 우선 배분기준 : 재무상태와 신용상태

- 정책자금을 지원할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을 설정할 때 기업의 재무상태와 신용상태를 우선 배분기준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재무상태(생산성, 안정성, 성장성 등) 45.8%
 - 신용상태(연체, 부도, 권리침해 여부 등) 22.2%
 - 사업전망(중점 지원업종 여부 등) 14.6%, 기술성(기술개발실적, 기술인증도 등) 14.6%, 기업경영능력(품질인증 등) 2.1%, 기타 0.7%
- 따라서 기업들이 요구하는 배분기준의 항목별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분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임.
 - 항목별 중요도는 1을 만점으로 위의 응답 구성비를 참조한다면, 재무상태 0.458, 신용상태 0.222, 사업전망 0.146, 기업경영능력 0.021, 기타 0.007을 부여할 수 있음

<표 4-6> 지원업체 선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우선 배분기준

(단위 : %, 개)

항목	재무상태 (생산성,안정성,성장성 등)	기술성 (기술개발실적, 기술인증도 등)	기업경영능력 (품질인증 등)	
구성비	45.8	14.6	2.1	
항목	사업전망 (중점지원업종 여부 등)	신용상태 (연체,부도,권리침해 여부 등)	기타	합계
구성비	14.6	22.2	0.7	100.0 (144)

주) ()는 응답수임

2) 정책자금의 고용창출력 강화

- 앞에서 정책자금을 용자받은 업체가 용자금을 지원받은 전과 후의 고용 증대는 0.7명에 불과하였고, 정책자금 중에서 인건비가 거의 기존인력 인건비 보전에 활용되고 있어 고용창출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따라서 정책자금의 고용창출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방안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정책자금을 용자받는 업체의 신규고용요건을 강화하거나 또는 인건비 중 일 정규모 이상을 반드시 신규인력을 채용하는데 사용하도록 사전 조건을 강화
 - 매년 사업 평가를 통하여 다음 연도 사업지원자금 차등 적용
 - 이들 제 사항에 대하여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하여 정책 효과성 제고

6.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지원방향

1) 향후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자금지원 분야

- 대전시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하여 향후 어떤 목적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자금 지원을 해야 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운전자금 등 경영안정과 창업지원에 중점 목적을 두고 자금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현행 경영안정자금은 운전자금 등 경영안정에 목적을 두고 2,500억원을 책정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 창업지원의 경우도 이미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200억원을 책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표 4-7> 향후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자금지원의 목적

(단위 : %, 개)

항목	생산성 향상 (공정성 개선, 자동화 등)	창업지원	기술개발	신규설비 투자
구성비	5.4	18.1	8.9	6.9
항목	구조조정 (희생특례, 사업전환, 긴급경영안정 등)	운전자금 등 경영안정	기술인력 양성	해외투자 수출 촉진
구성비	6.6	44.0	4.6	0.4
항목	경영혁신 (시설개선, 협동화, 지식기반서비스 등)	기타		합계
구성비	4.6	0.4		100.0 (259)

주) 다중응답이며, ()는 응답수임

2) 가장 중요한 정책자금 개선안

-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선안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대체로 다양한 방안들이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가장 중요한 개선안으로는 긴급한 경영상황에 직면한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회생자금 확대 23.3%, 기업 부담금리 조정으로 금융비용 완화 23.3%, 사회취약계층 특례보증 지원 19.1%, 무담보 기술업종에 대한 금융지원 15.3% 순으로 조사됨.
 - 기타, 지식서비스산업, 성장산업 등으로 지원업종 대폭 확대 13.6% 등도 중요한 개선방안으로 지적함.
 - 물론 이와 같이 기업들이 지적한 개선안은 현재 대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도 상당부분 있으므로 현행보다 더 강화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행 시행되지 않고 있는 무담보 기술업종에 대한 금융지원 등은 ‘기술 가치보험제도’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표 4-8> 가장 중요한 정책자금 개선안

(단위 : %, 개)

항 목	구성비
지식서비스산업, 성장산업 등으로 지원업종 대폭 확대	13.6
긴급한 경영상황에 직면한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회생자금 확대	23.3
기업 부담금리 조정으로 금융비용 완화	23.3
무담보 기술업종에 대한 금융지원	15.3
사회취약계층 특례보증 지원	19.1
벤처 투자조합 확대 조성·운용을 통한 벤처기업 육성	5.5
합 계	100.0 (236)

주) 다중응답이며, ()는 응답수임

7. 사후관리체계 강화 : 성과평가 및 환류시스템 구축

-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기 전의 자격요건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정책자금 지원 후 지원목적에 부합하게 효과적으로 활용되었는지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사후적 성과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 물론 현재도 중소기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정책자금 지원시 해당기업의 평가에 있어 관련 산업분석을 통한 사후성과관리를 추진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의 자본조달 기법이 다양해지고 금융기관들의 리스크 감소를 위한 여신심사기법이 나날이 발전되어가고 있으나, 기존의 기업경영분석기법들은 주로 재무제표 분석, 특히 개별기업이 수익성(이익률) 분석에 치중되어 있음
- 따라서 정책금융 지원 중소기업이 속한 산업분석을 통해 미래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줄이고 정책자금이 본래 지원목적에 활용되어 지원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캐나다는 육성자금 대출 당시에는 높은 금리를 성장하되, 일자리창출, 조기상환 등 일정한 수준 이상의 목표를 달성한 기업에게 금리 인센티브(환급)를 제공하거나 혹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자금지원정보 DB 확대 구축 및 내실화를 위하여 지원기업의 산업, 업종, 규모, 매출액, 담보종류, 대출미실행 사유 등 필요정보를 추가함.
 - 또한 지원성과 분석 및 환류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한 기업이 2차, 3차, 그리고 성장단계별로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지원성과를 엄밀히 평가·분석하여 지원금액을 인센티브 성격의 차등을 두어 지원함으로써 지원업체의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해야 할 것임.

제2절 중앙정부 중심 추진방안

1. 기술가치 평가 및 기술금융 확대

1) 중소기업의 기술가치평가 활성화 : 중소기업 기술가치 평가기관 설립

- 현재 기술평가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기술평가의 신뢰도도 부족하여 기술평가와 금융의 연계성이 크게 부족한 실정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자금조달에 더 큰 애로를 겪기 마련
 - 따라서 기술평가가 활성화되고 기술평가의 신뢰도가 높아지면, 기술평가에 따라 금융기관의 창업과 사업화자금을 공급구조 정착을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불확실한 사업화 가능성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는 우수한 기술의 발굴이 촉진
- 따라서 금융기관의 대출심사에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평가의 표준화 및 기술평가 인프라 확충을 통해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가 필요함.
- 이를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가치 평가기관의 설립을 검토할 수 있음.

2) 기술금융 확대 : 효율적 기술평가시스템 구축

- 기술금융은 신뢰할 수 있는 평가에 기초하기 때문에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효율적 평가시스템 구축이 중요함
 - 이러한 효율적 평가시스템은 기술금융에 내재된 불확실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을 효과적으로 축소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임

- 효율적 기술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 공공재적 성격의 기술정보DB 구축
 - 은행 등 금융권의 기술평가 역량 제고
 - 민간기술신용평가기관을 적극 육성

2. 신용보증 및 신용보험 활성화

- 중소기업의 담보부족으로 정책자금 도움 없이 자력으로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하지 못하는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자산을 담보로 하는 신용보증을 확대하여 일시적 자금난 업체의 자금조달 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어음,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 유형, 무형의 자산을 담보로 신용보증을 가입하고 이를 담보로 단기운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용보증을 활성화
- 또한 신용보증과 연계하여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도록 신용보험을 취급할 수 있는 기관을 신용보증재단으로 확대하여 신용보험을 활성화 함.
- 이와 같은 신용보험 확대로 중소기업이 운전자금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음으로써 흑자도산을 방지할 수 있고, 나아가 매출 증대, 위험관리능력 제고, 자금조달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3. 중소기업청 소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 개선

- 지역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이후 추가 자금수요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에서 중복지원 감점 처리

- 세부지표 : ㉔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리 및 효율화 실적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지원이력 입력률×0.7) + (정책자금 중복지원 방지율×0.3)

※ 정책자금 중복지원 방지율 : $[1 - (\text{정책자금 중복지원 금액} / \text{정책자금 지원 금액})] \times 100$

- 지역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자금수요가 발행했을 경우 한도금액은 낮지만 금리에서 다소 유리한 지방자체단체의 경영안정자금을 선호하게 됨.
- 그러나 중복지원으로 분류되어 신청이 제한되고 있는 바, 추가적인 자금수요시 중소기업이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동평가지표 내에 중복지원의 감점 적용 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제 5 장

요약 및 정책건의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정책건의

제 5 장 요약 및 정책방향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가 지역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지원목적에 맞게 활용되어 얼마만큼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실제 지원자금을 용자 받은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하여 객관적인 효과분석을 시도하였음.
- 주요 시·도 대비 대전의 경영안정자금에 대하여
 - 지원규모는 인천, 경기도, 대구보다는 낮고 울산, 전북, 강동, 충북, 서울 등보다 크며, 지원한도는 대전이 타 시·도보다 낮은 수준임.
 - 융자기간은 대전보다 강원도, 서울, 전북, 경기도가 더 길며, 이차보전 이자율은 대구를 제외하고 주요 시·도의 이차보전 이자율은 대체로 2.0~3.0%의 유사한 수준에서 지원되고 있음.
- 정책자금 지원실적을 검토한 결과
 - 경영안정자금은 지원 계획자금이 기업들에게 실제 모두 이용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하여 계획자금의 이용 활용도를 높이고, 이용 업체수와 이용금액의 확대를 위한 이용조건 개선, 적극 홍보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은 2016년에도 지원계획금액이 모두 소진될 경우 2017년에는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은 2015년은 100억원 증액한 200억원이 모두 소진되었고 지원업체수도 대폭 증가한 점을 감안하여, 2016년에도 계획자금이 모두 소진될 경우 자금을 증액할 필요가 있음.

- 정책자금 지원성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정책자금을 용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 정책자금 활용 용도는 기술개발(5.3%)과 인력확보(3.8%)의 활용도는 낮아 정책자금의 일자리창출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정책자금이 경영환경 및 주요 경영지표에 미친 영향은
 - 정책자금이 경영부담 경감, 생산성 증대, 사업운영 규모 확대, 신용 상승, 신규 사업 및 영역 진출 등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신규 근로자의 추가 고용에는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정책자금이 주요 경영지표에 미친 영향은 생산과 매출액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큰 반면, 고용에 미친 영향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 정책자금 용자 받기 전년도와 용자 받은 후년도의 경영지표 변화를 조사한 결과, 생산은 기업당 2억5천2백만원, 매출은 기업당 1억9천8백만원 각각 증가하였고, 고용은 기업당 0.77명 증가에 그쳤음.

-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어려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 기업 자력으로 필요자금을 충분히 조달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담보부족이 가장 크며, 대출한도 부족, 높은 금리, 매출 부족, 은행의 보수적 대출심사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이유는 대부분이 낮은 금리 때문으로 응답함.
 - 동산 담보대출은 88.7%의 기업이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금융기관의 취급 기피, 이용절차가 복잡하고 조건이 까다로움, 제도에 대해 잘 모름 등으로 파악됨.

- 정책자금에 대한 불만 사항으로는
 - 신용대출 곤란 및 담보·보증 요구가 가장 많았으며, 지원자금 및 대출규모가 적음, 지원·거래 절차 및 구비서류 복잡, 대출기간이 단기 등으로 조사됨.

제2절 정책건의

1. 대전광역시 중심 추진방안

- 정책자금 이용 확대를 위하여
 -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에 대하여 계획된 자금이 모두 소진될 수 있도록 지역 모든 중소기업에게 직접방문이나 안내장을 송부하고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용 전개
 - 경영안정자금의 지원기업분야 확대를 위하여 지역산업육성계획 등을 고려하여 우대기업 유형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대전시 주력산업 중 자체 육성산업인 국방산업분야, 무담보 기술기업에 대하여 금융지원하고 나아가 소상공인 취약계층, 무형자산 보유 기업 등으로 지원대상 확대 및 융자제한조건 개선하고 신기술이나 특허 등 미래가치를 지닌 무형자산 보유 창업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 등에게도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으로 확대 검토
 - 영세·소기업 자금지원신청 도우미 지원
 -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우대범위 합리화 방안으로 단기 운전자금이 부족한 업체를 경영안정자금 지원조건으로 추가 설정, 유동성 악화업체에 지원되도록 기준을 재정비

- 정책자금의 지원한도 규모 확대 검토
 - 경영안정자금에 대하여 현행 2~5억원인 기업당 우대금리와 일반금리 지원한도 규모를 확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은 2015년 계획금액 200억원이 모두 소진된 점을 감안하여 2016년도에도 모두 소진될 경우, 다시 계획금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음.
 -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은 첫째, 현행 기업당 5억원인 지원한도를 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그러나 이 방안은 1기업당 5억원도 상당

수준이므로 기업에 따라서는 상환에 부담이 될 수도 있음. 둘째, 2016년 현재 총지원규모가 300억원인데 매년 지원실적금액이 모두 소진되고 있는 만큼 총 지원규모를 100억원 이상 증액하여 현행 지원조건으로 지원업체를 확대하는 방안. 셋째 1기업당 지원한도를 3억 또는 4억으로 축소하고 대신 자금의 운용이나 상환내역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업에게 2차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넷째, 융자기간을 현행 2년 거치 일시상환에서 거치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거나 일시상환도 2년 이상 상환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융자기간 연장 또는 이차보전을 상향 검토
 - 경영안정자금은 현행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을 만기기간을 3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또는 일시상환을 2년 이상 등으로 융자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은 이차보전 이자율을 우대기업이나 일반기업에 대하여 각각 현행 각각 2.5%, 1.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그러나 2014년까지 총지원금액 300억원이 모두 소진되지 않았으나, 2015년부터 200억원으로 감액한 이후 모두 소진된 점을 감안할 때, 이차보전을 상향을 검토할 경우에는 총지원금액 현행 200억원을 300억원 등으로 증액하여 더 많은 기업이 이용하려는 과당경쟁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

- 재무와 신용상태에 중요도를 고려한 배분 기준
 - 지원업체 선정에 위한 가장 중요한 우선 배분기준 : 재무상태와 신용상태
 - 정책자금의 고용창출력 강화를 위하여 매년 사업 평가를 통하여 다음 연도 사업지원자금 차등 적용

-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업 방향과 가장 중요한 정책자금 개선안
 - 향후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자금지원 분야는 무엇보다도 운전자금 등 경영 안정이며, 기타 창업지원, 기술개발, 신규설비투자, 생산성 향상 등임
 - 가장 중요한 정책자금 개선안으로는 우선 긴급한 경영상황에 직면한 우량 중

소기업에 대한 기업회생자금 확대와 기업 부담금리 조정에 의한 금융비용 완화임. 그러나 사회취약계층 특례보증 지원, 우담보 기술업종에 대한 금융지원, 지식서비스산업, 성장산업 등으로 지원업종 대폭 확대 등도 중요함.

- 사후관리체계 강화 : 성과평가 및 환류시스템 구축
 - 정책자금 지원 후 지원목적에 부합하게 효과적으로 활용되었는지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사후적 성과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 지원성과 분석 및 환류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한 기업이 2차, 3차, 그리고 성장단계별로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지원성과를 엄밀히 평가·분석하여 지원금액을 인센티브 성격의 차등을 두어 지원함으로써 지원업체의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해야 할 것임.

2. 중앙정부 중심 추진방안

- 중소기업의 기술가치평가 활성화 : 중소기업 기술가치 평가기관 설립
 - 대전지역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기술평가가 활성화되고 기술평가의 신뢰도가 높아지면, 기술평가에 따라 금융기관의 창업과 사업화자금을 공급구조 정착을 기대할 수 있음
 - 따라서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가치 평가기관의 설립을 검토할 수 있음.
- 기술금융 확대 : 효율적 기술평가시스템 구축
 - 기술금융은 신뢰할 수 있는 평가에 기초하기 때문에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효율적 평가시스템 구축이 중요함
 - 효율적 기술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공공재적 성격의 기술정보DB 구축, 은행 등 금융권의 기술평가 역량 제고, 민간기술신용평가기관을 적극 육성

- 신용보증 및 신용보험 활성화
 - 중소기업의 담보부족으로 정책자금 도움 없이 자력으로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하지 못하는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자산을 담보로 신용보증을 확대하여 일시적 자금난 업체의 자금조달 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어음,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 유형, 무형의 자산을 담보로 신용보증을 가입하고 이를 담보로 단기운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용보증을 활성화

- 중소기업청 소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 개선
 - 지역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자금수요가 발행했을 경우 한도금액은 낮지만 금리에서 다소 유리한 지방자체단체의 경영안정자금을 선호하게 됨.
 - 그러나 중복지원으로 분류되어 신청이 제한되고 있는 바, 추가적인 자금수요 시 중소기업이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동평가지표 내에 중복지원의 감점적용 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참 고 문 헌

- 김기희(2015),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대전시 기업지원정책 발전방안」, 대전발전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2015-53
- _____ (2013), 「대전 중소기업의 성장과정과 특성 분석 - 제조업체의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대전발전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3-02.
- _____ (2012), 「유망중소기업 선정·지원의 효과분석과 효율적 지원방안」
- _____ (2011),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기업의 경영안정 및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 조사연구」, 대전발전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2011-05
- 대전광역시, “각 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2010~2016년
- _____ (2016), 「2016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2016년
- 중소기업청(2016), 「2016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2016년 1월
- 인천발전연구원(2016), 「전국 광역시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현황 및 개선방안」, 미발간 각 시·도연구원 참고자료, 인천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 2-16.9.

부 록 : 설문지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효율적 운용방안

업 종		ID			
-----	--	----	--	--	--

안녕하십니까?

저희 대전발전연구원은 대전의 중장기 발전정책 연구 및 미래비전 제시를 위한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대전광역시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전문정책연구기관입니다.

저희 대전발전연구원에서는 대전지역의 강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더 많은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의 운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익명으로 통계처리되며,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어 귀하의 신분과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귀하의 성실하고 귀중한 답변이 대전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의 초석이 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성의껏 응답해 주시기를 적극 부탁드립니다.

2016년 8월.

대전발전연구원장 유 재 일

조사기관 : 대전발전연구원,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

연락처 : 선임연구위원 김기희(☎ 530-3519, FAX 530-3528)

면접원 정 보	이 름	연 락 처	응답자 정 보	연 락 처

용자 실적 및 일반현황

1) 인력현황 및 매출액

구분	종사자수		매출액
2015년 말 현재	정규직	명	백만원
	비정규직	명	

2) 정책지원금 용자실적 (용자받은 해당년도에만 기입)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지원자금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경영안정지원자금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2-1) 기타 정책지원금 수혜 실적 (수혜받은 해당년도에만 √체크)

구분	수혜 받은 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					
벤처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조합 운용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비 용자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비 및 사업개발비					

2-2) 기타 지원시책 수혜 실적 (수혜받은 해당년도에만 √체크)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창업지원						취업지원					
기술지원						소상공인					
판로지원						지식재산					
인력양성						기타지원					

3) 용자받은 지원금으로 채용한 신규 추가인력 (용자받은 해당년도에만 기입)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정 규 직	명	명	명	명	명
비정규직	명	명	명	명	명

정책자금 만족도

4) 용자받은 지원자금을 주로 어떤 용도로 활용하였습니까?

(해당되는 항목 복수응답 가능)

- ① 운전자금 ② 시설자금 ③ 인력확보 ④ 직원 교육훈련 ⑤ 기술개발
 ⑥ 판로개척 등 마케팅 ⑦ 제품생산 ⑧ 수출관련 ⑨ 원자재 등 재료비
 ⑩ 홍보 등 판촉활동 ⑪ 일반관리비 ⑫ 기타 (_____)

5) 인건비는 주로 어떤 용도로 활용하였습니까? (해당되는 항목 복수응답 가능)

- ① 기존인력 인건비 보전 ② 신규 정규인력 채용 ③ 인턴사원 채용
 ④ 신규 임시직 등 비정규직 채용 ⑤ 기타 (_____)

6) 정책자금 지원받은 이후 경영현황의 주요 변화는 어떻습니까? (해당란에 √체크)

항 목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장기·저리의 정책자금 이용으로 경영부담 경감					
시설 가동률 등 사업운영 규모 확대					
업체의 생산성 증대					
기존 근로자에 대한 임금 상승					
신규 근로자의 추가 고용					
시중은행 및 거래처 등으로부터의 신용 상승					
신규 사업 분야 및 영역 진출					

7) 융자금을 운용한 결과 귀사에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습니까?
(해당란에 √체크)

항 목	① 전혀 없다	② 대체로 작다	③ 보통	④ 대체로 크다	⑤ 매우 크다
생 산					
매 출					
고 용					

8) 융자받기 전과 후의 생산·매출·고용면에서의 변화를 비교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구 분	융자받기 전년도	융자받은 후년도
생산액	백만원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백만원
고용인력 (년말 총인원)	명	명

9) 현재 지원하고 있는 자금에 대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현재규모 (개별기업)	희망 지원규모 (개별기업)
경영안정자금	5천만~5억	()천만 ~ ()억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3억 이내	()억 이내
구매조건생산자금	5억 이내	()억 이내

구 분	현재 지원회수	희망 지원횟수			
경영안정자금	3회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구매조건생산자금	1회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구 분	현재 이차보전율	희망 이차보전율			
경영안정자금	2~3%	① 1~2%	② 1.5~2.5%	③ 2~3%	④ 3~4%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2%	① 0~1%	② 0.5~1.5%	③ 1~2%	④ 1.5~2.5%

정책자금 지원시책 평가

10) 정책자금 지원시책 또는 은행에서 자금대출시 가장 불만인 사항은?

☞ 불만이 큰 순서로 2개만 선택 (1순위 :) (2순위 :)

- ① 신용대출 곤란 및 담보·보증 요구 ② 예금 가입 등 꺾기 요구
- ③ 대출금리가 높음 ④ 지원자금 및 대출규모가 적음
- ⑤ 실적위주의 평가기준 ⑦ 담보 부족 및 평가비율이 낮음
- ⑧ 담당자 재량권 부족 및 의사결정이 늦음 ⑥ 대출기간이 단기
- ⑨ 지원·거래 절차 및 구비서류 복잡 ⑪ 까다로운 대출심사
- ⑩ 지원자금의 정보 제공 및 서비스 부족 ⑫ 기타(_____)

11)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 ① 낮은 금리 ② 신용대출 가능 등 좋은 담보조건 ③ 긴 대출기간
- ④ 대출금액이 커서 ⑤ 기술 및 사업성 위주의 기업심사 ⑥ 적기 대출 가능
- ⑦ 은행 대출이 곤란해서(담보 부족 등) ⑧ 기타(_____)

12) 정책자금의 지원을 통하여 귀사에 가장 도움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 ① 경영안정 ② 매출증대 ③ 고용증대 ④ 생산성 향상 ⑤ 기타(_____)

13) 귀사가 정책자금 도움 없이 자력으로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하지 못한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가장 중요한 순서로 2개만 선택 (1순위 :) (2순위 :)

- ① 담보 부족 ② 창업 초기 기업 ③ 매출 부족 ④ 높은 금리
- ⑤ 대출한도 부족 ⑥ 낮은 신용 ⑦ 은행의 보수적 대출심사
- ⑧ 기타(_____)

14) 동산담보대출을 이용하십니까?

- ① 이용한다 ☞ 15)로 ② 이용하지 않는다 ☞ 14-1)로

14-1) 동산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③ 대출한도 등 조건이 좋지 않아서 ② 금융기관의 취급 기피
- ① 제조에 대해 잘 몰라서 ④ 이용절차가 복잡하고 조건이 까다로워서
- ⑤ 타대출 이용 등 필요 없어서 ⑥ 기타(_____)

15) 현재 귀사의 경영상황이 어렵다면, 귀사가 겪고 있는 주된 경영난은 무엇입니까?

- ① 판매난 ② 자금난 ③ 인력난 ④ 기술난
- ⑤ 원자재난 ⑥ 기타(_____)

16) 시급한 자금지원정책은 무엇입니까?

- ① 신용보증지원 확대 ② 운전자금지원 확대
- ③ 판로개척·마케팅·관측 등 지원 확대 ④ 시설자금지원 확대
- ⑤ 무역금융지원 확대 ⑥ 만기대출금 상환연장
- ⑦ 상업어음할인 확대 ⑧ 어음보험지원 확대
- ⑨ 부도어음 상환요구 자제 ⑩ 기타(_____)

17) 지원업체 선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우선 배분기준은 무엇입니까?

- ① 재무상태(생산성, 안정성, 성장성 등) ③ 기업경영능력(품질인증 등)
- ② 기술성(기술개발실적, 기술인증도 등) ④ 사업전망(중점지원업종 여부 등)
- ⑤ 신용상태(연체, 부도, 권리침해 여부 등) ⑥ 기타(_____)

18) 향후 대전시는 어떤 목적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자금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가장 중요한 순서로 2개만 선택 (1순위 :) (2순위 :)

- ① 창업지원 ② 기술개발 ③ 생산성 향상(공정개선, 자동화 등)
- ④ 신규설비 투자 ⑤ 기술인력 양성 ⑥ 운전자금 등 경영안정
- ⑦ 경영혁신(시설개선, 협동화, 지식기반서비스 등)
- ⑧ 구조조정(희생특례, 사업전환, 긴급경영안정 등)
- ⑨ 해외투자 및 수출 촉진 ⑩ 기타(_____)

19)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선안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가장 중요한 순서로 2개만 선택 (1순위 :) (2순위 :)

- ① 지식서비스산업, 성장산업 등으로 지원업종 대폭 확대
- ② 긴급한 경영상황에 직면한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회생자금 확대
- ③ 기업 부담금리 조정으로 금융비용 완화
- ④ 무담보 기술업종에 대한 금융지원 ⑤ 사회취약계층 특례보증 지원
- ⑥ 벤처 투자조합 확대 조성·운용을 통한 벤처기업 육성
- ⑦ 기타(_____)

대전광역시에 건의할 사항

☆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정책연구보고서 2016-39

대전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성과검토와 효율적 지원방안

발행인 유 재 일
발행일 2016년 11월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 (선화동 287-2)
전화 : 042-530-3519 팩스 :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jdi.re.kr>

인쇄 : 영창당인쇄사 TEL 042-626-7888 FAX 042-626-9888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